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

2017. 12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 연구

2017. 12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연구원

오 수 현

KOICA ODA연구원 연구원 (suhyonoh@koica.go.kr)

주요 연구 실적

- ▷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KOICA, 2016
- ▷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연구. KOICA, 2015.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자원매커니즘”. 국제개발협력 2015년 3호. KOICA, 2015.
- ▷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의 합의 분석”. 개발과이슈 제24호. KOICA, 2015.

임 한 나

KOICA 혁신사업실 대리 (hannayim@koica.go.kr)

주요 연구 실적

- ▷ “Incorpo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KOICA, Hanna Yim, 2017.
- ▷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e Case of Indonesia’s Development Policy”, Korea University, Hanna Yim, 2014.

이 경 선

KOICA ODA연구원 연구보조원

주요 연구 실적

- ▷ 2017. “정부와 개발 NGO의 협력관계: 협력요인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9(4): 113-145.
- ▷ 2016.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GO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countr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4): 275-291.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는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원칙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은 그 자체로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가져올 수 는 없으나, 빈곤층의 수요와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금융 포용의 개념과 최신 동향,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유형의 금융 포용 사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KOICA의 금융 포용 요소의 전략적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금융 포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금융 포용의 개념, 금융 포용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현황 및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유형의 금융 포용 사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들은 KOICA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농업분야 금융 포용 사업, 금융 포용 관련 국제기구 사업,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포용 요소가 포함된 KOICA 사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KOICA의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ICA의 금융 포용 요소 도입에 있어 전략 단위에서는 첫째, KOICA의 SDGs 달성 노력에 있어 금융 포용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며; 둘째, 금융 포용 요소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KOICA 사업 내 금융 포용 노력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단위에서는 수혜자를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의 정확한 수요와 특징을 파악하여 사업을 기획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융 포용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이므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요약

The concept of ‘Financial Inclusion’ has been emphasizing with its important rol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h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No one left behind’ across 17 goals. Finance does not solely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hich suitably meet the needs of customers and improve access to finance for poor can be a strong tool to accelerate poverty reduction leading to inclusive growth. This research has been implemented to suggest how to bring a financial inclusion component to KOICA’s programme in a strategic way with a case study of financial inclusion programmes in Myanmar.

The Chapter 1 briefly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purposes of research. The Chapter 2 describes the concept and recent landscape of financial inclusion. The Chapter 3 explains what other donor agenci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private sector are doing in field of financial inclusion in Myanmar. The case studies are selected to provide relevant implications to KOICA’s programme, which are Livelihood and Food Security Fund (Multi-donor fund for financial inclusion in Agricultural sector), UNCDF’s SHIFT Challenge Fund (grant programme for financial inclusion) and Wave Money (Digital financial company in Myanmar).

Finally, the Chapter 4 suggests the strategic direction of KOICA on financial inclusion with an analysis of current KOICA programme in this field. The fou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KOICA should find out which priority sector (ex. agriculture) financial inclusion can link with to achieve the SDGs. Secondly, KOICA need to build the monitoring system to track its effort on financial inclusion and improve its works. Thirdly,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beneficiary as a customer and identify their accurate needs and characteristics to provide

appropriate and affordable financial services. Fourthly, financial inclusion is an area which can make synergy with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ICA work with private sector through inclusive business programme to formulate a financial inclusion programme.

목 차

국문요약	i
Executive Summary	i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의의 및 한계	5
제2장 금융 포용에 대한 이해	6
1. 금융 포용의 개념	6
가. 금융 포용의 정의	6
나. 금융 포용 개념의 발전	8
다. 금융 포용 분야의 생태계와 지원방안	10
2. 금융포용의 국제 사회 논의 동향	12
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금융 포용	12
나. G20와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16
다. OECD DAC의 금융 포용 모니터링	19
3. 금융 포용의 최신 동향	20
가. 저소득층(BOP)시장을 위한 시장세분화	21
나. 모바일 기기 및 IC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23
다. 금융 포용 분야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25
제3장 금융 포용 주요 사례: 미얀마를 중심으로	27
1. 미얀마 금융 부문 현황	27

2. 미얀마 금융 포용 사례	29
가.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	30
나. UNCDF의 금융포용변화 형성을 위한 챌린지 펀드(SHIFT Challenge Fund)	35
다. 웨이브머니(Wave Money)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40
3. 미얀마 금융 포용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	44
 제4장 KOICA 사업 도입을 위한 시사점	46
1. KOICA 금융 포용 분야 사업 현황	46
2. KOICA 금융포용 관련 사업 현황의 특징	50
3. KOICA 금융포용 분야 전략적 도입 방안	53
가. 범분야로서의 금융 포용 도입	53
나. 단독분야로서의 금융 포용 도입	57
다. 금융 포용 도입 시 주의 사항	61
4. 결론	66
 참고문헌	67
 [부록 1] 미얀마 현지조사 주요 이해관계자별 면담 내용	75
[부록 2] UNCDF SHIFT Challenge Fund 심의 기준	80

표 목차

〈표 1〉 현지조사 일정	4
〈표 2〉 금융 포용 분야 생태계	11
〈표 3〉 금융 포용 분야 지원방식	12
〈표 4〉 SDGs 내 금융포용 관련 목표	13
〈표 5〉 G20 혁신적 금융 포용 원칙	17
〈표 6〉 G20 금융 포용 지표	18
〈표 7〉 금융 포용 관련 OECD DAC CRS 코드	20
〈표 8〉 송금 관련 OECD DAC CRS 코드	21
〈표 9〉 LIFT 금융 포용 관련 사업 논리 모형	33
〈표 10〉 LIFT 금융 포용성 프로그램(2015-2018) 개요	34
〈표 11〉 UNCDF SHIFT Challenge Fund 자금모집 현황	37
〈표 12〉 UNCDF SHIFT Challenge Fund 운영현황	38
〈표 13〉 계좌 보유자의 송금 수수료	41
〈표 14〉 가맹점을 통한 송금 수수료	42
〈표 15〉 미얀마 금융 포용 사례 분석	45
〈표 16〉 KOICA 중점분야	46
〈표 17〉 KOICA 금융포용 요소 포함 사업	47
〈표 18〉 SDGs 달성을 위한 KOICA 금융포용 도입 사업 예시	54
〈표 19〉 농업분야 고객 세분화 제시 (안)	55
〈표 20〉 가치사슬금융의 디지털 접근방식 (안)	56
〈표 21〉 금융포용 분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도입 예시	58
〈표 22〉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트 예시	61
〈표 23〉 금융 포용 관련 CRS 코드와 KOICA 사업 매칭	64
〈표 24〉 KOICA CRS 코드별 SDG 마커와 5대 분야 연계	65

그림 목차

〈그림 1〉 금융 포용의 효과	7
〈그림 2〉 금융 포용 용어 연도별 사용 빈도수	9
〈그림 3〉 LIFT 성과 프레임워크	31
〈그림 4〉 LIFT 농민들에 대한 생계 전략	32
〈그림 5〉 웨이브머니 현지조사	43
〈그림 6〉 조사 대상 금융포용 요소 포함 KOICA 사업 변화 추이	48
〈그림 7〉 KOICA 사업방식별 금융포용 요소 포함 현황	49
〈그림 8〉 KOICA 분야별 금융포용 요소 분류 현황	50
〈그림 9〉 금융포용 요소 포함 가능성 여부 스크리닝 예시	55
〈그림 10〉 금융 포용을 위한 인간 중심 사업 기획 방식	62
〈그림 11〉 KOICA 금융포용 실제 사업 수 대비 OECD DAC 보고 수 비교	64

Box 목차

〈박스 1〉 금융포용과 주변 개념과의 관계	8
〈박스 2〉 BOP충을 위한 고객중심의 의미	22
〈박스 3〉 금융 포용을 위한 고객 중심 사업 사례	23
〈박스 4〉 Safe Water Network 사례	24
〈박스 5〉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활용 사례	42

약어표

약어	영문명	국문명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BOP	Bottom of Pyramid	최하위 소득계층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빈곤층지원 자문그룹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FMO	Netherlands Development Finance Company	네덜란드개발은행
FSPs	Financial Service Providers	금융서비스공급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IFT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
MFI	Micro Finance Institute	소액대출기관
MNO	Mobile Network Operator	모바일 통신사
NRC	National Registration Card	미얀마 주민등록번호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유엔자본개발기금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I. 서론

1. 연구 배경

Post-2015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내에서 빈곤층을 포용한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 포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데에는 금융이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의 사용 자체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가져올 수 는 없으나,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은 빈곤층이 처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금융 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조는 사실 SDGs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G20에서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포용’ 의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동 의제를 개발 의제에 포함시키며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을 출범시켰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도 2013년 ‘2020년까지 보편적 금융 접근성 달성(Universal Access to Finance by 2020)’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바 있다. OECD DAC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의 잠재력 및 활용가능성을 인지하고, 송금의 활용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여국의 금융 포용 노력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본국 송금액 분야 사업에 대한 통계 분류 값을 신설하였다.

많은 공여기관, 국제기구, 다자은행, 개발금융기관들도 이와 같은 흐름과 함께 금융 포용 의제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금융포용 지원 금액은 총 340억 불이며, 이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공여기관들의 금융 포용 확대 노력은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 모바일 금융, 핀테크 등 과학기술과 접목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역시 국제사회의 금융

포용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개발협력분야의 대표 원조 집행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디지털 요소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융 포용’ 사업 발굴 요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KOICA의 금융 포용 분야 사업의 전략적 방안 모색을 통해 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OICA 사업 내에 금융 포용 요소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포용의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금융 포용의 핵심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 포용을 떠올리면 가장 쉽게 생각하게 되는 소액대출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 포용 관련 국제사회 최신 동향과 다양한 금융 포용 사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소액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금융 포용 사업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융합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으며 (윤유리, 2017),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KOICA가 금융 포용 의제를 선도하고 혁신적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KOICA의 기존 사업 중에서 금융 포용 요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KOICA 기존 사업 중 금융 포용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KOICA가 현재 금융 포용 관련하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소액대출사업이며, 이 외에도 금융시스템 관련 역량강화 및 제도구축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KOICA 소액대출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금융 포용 요소를 보다 접목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향후 금융 포용 요소들을 접목 가능한 중점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금융 포용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된다. 문헌 조사의 범위로는 금융 포용 관련 국내 문헌, UN, OECD, G20, CGAP 발간 보고서, 금융 포용 및 소액대출 관련 학술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KOICA 금융 포용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KOICA 사업 중 ‘금융, 소액대출, 증권, 금융 포용, 송금 등’ 금융 포용의 의미를 내포할만한 단어 검색을 통해 금융 포용 관련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현지조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금융 포용 사업이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KOICA 중점협력국 중 한 국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얀마로서, 미얀마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는 최근 경제 개방으로 인해 여러 공여기관에서 미얀마에 금융 포용 관련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도 진출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둘째, 2017년 5월 미얀마 양곤에서 금융 포용 전문 기관인 ‘빈곤층지원 자문그룹(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¹⁾ 연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금융 포용 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CGAP은 총 12개의 공여기관, 6개의 개발금융기관, 7개의 주요 자선재단, 5개의 다자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금융 포용 관련 의제를 논의하며, 연구 수행 및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CGAP 연례 회의 참석을 통해 여러 공여기관들의 금융 포용의 전략적 방향성 및 최신 노력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지조사는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행되었으며 현지조사에서 만난 면담기관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세계은행에 속해 있는 금융포용 관련 기관으로 에서 금융포용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표 1〉 현지조사 일정

날짜	시간	면담기관	주요 내용
5.15 (월)	9:00	KOICA 미얀마 사무소	현지조사 계획 공유
	11:00~ 14:00	KB Microfinance Myanmar	KB Microfinance Myanmar 사업 현황 향후 계획 및 KOICA 협력방안 모색
	15:30~ 16:30	농협파이낸스 미얀마	농협파이낸스 미얀마 사업 현황 향후 계획 및 KOICA 협력방안 모색
5.16 (화)	18:00~ 18:40	영국 국제개발부 (DFID)	DFID 미얀마 민간부문개발 및 금융 포용 사업 현황
	19:00~ 19:30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혁신사업실 사업 소개 및 협력 가능성 논의
	20:00~ 22:00	일본 JICA	JICA 금융포용 관련 사업 현황 CGAP 활용 방안 공유
5.17 (수)	12:00~ 13:00	유엔자본개발기금 (UNCDF)	UNCDF 미얀마 금융 포용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소개 및 현황 KOICA 협력방안 논의 (방글라데시, 미얀마)
5.18 (목)	14:30~ 15:10	마스터카드재단	마스터카드재단 금융포용 지원현황 KOICA 아프리카지 역 기업협력사업
	17:00~ 17:30	미국 USAID	혁신사업실 사업 소개 및 협력 가능성
	18:00~ 18:30	Women's World Banking	Women's World Banking 사업 소개 혁신사업실 사업 소개 및 협력 가능성
5.19 (금)	08:00~ 12:00	Wave Money 현장 방문	Wave Money 4개 대리점 인터뷰 Wave Money 현황 및 운영방식 공유
	13:30	KB 양곤사무소	송금 관련 KB은행 사업 소개
	15:00	신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미얀마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 현황 KOICA 협력 방안 모색
	16:30	신한은행 양곤지점	미얀마 사업 현황 KOICA 협력 방안 모색
	17:30	KOICA 미얀마 사무소	현지조사 결과 공유

4. 연구 의의 및 한계

동 연구는 KOICA 금융 포용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과 동시에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 금융 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포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개발협력분야 내에서 금융 포용 관련 연구보고서로는 유재원 외(2012)이 개도국 금융 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금융 발전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금융 분야 ODA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곽성일·이주영(2013)은 금융포용을 위한 소액대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타 공여국의 소액금융 ODA 사업 현황 조사 및 소액금융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황규득 외(2015)는 가나와 우간다 사례를 통해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시장 진출 방안으로서 국내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노형식·이순호(2014)가 금융포용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보고서는 국내 금융 분야의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개발협력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 조사 결과, 금융 포용의 개념만을 다루거나 혹은 소액금융, 모바일금융 등의 주제를 다룬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보고서가 2015년 이전 수행되어 Post-2015 의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개발협력분야에서의 금융 포용의 중요성 및 최신 국제 사회 논의 및 사업 동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동 연구의 한계로는 금융 포용 관련 개발협력분야 논의 동향과 미얀마 내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KOICA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을 도출했다는 데 있다. 향후 금융 포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에는 타 공여기관의 금융 포용 관련 전략 및 사업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제2장 금융 포용에 대한 이해

1. 금융 포용의 개념

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정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Worldbank, 2013). 금융포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이라는 반대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25억 명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금융 접근성의 확대가 빈곤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들은 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이용 가능한 금융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제도권 외에 위치한 사금융이 대부분이며, 공식 은행계좌를 가지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송금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금융소외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고, 경제주체가 가격이 알맞으며(affordable) 필요에 적합한(appropriate)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정한 가격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빈곤에 노출된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외는 개인이 부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개인의 경제적 향상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하락 및 과다부채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전체로는 시장구조와 경제성장이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없게 영향을 주며, 사회 보장 시스템에 추가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1〉 금융 포용의 효과



출처: 저자 재작성, 세계은행(2016) 참고

따라서, 금융 포용은 기존의 금융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제도권 외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금융 포용의 핵심은 제도권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 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득 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금융 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낮추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어 지하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 내의 자본형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평시에 이체를 이용한 소득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잠재적 이용자들이 저축 및 보험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이 외에도 금융포용과 관련된 주변 개념으로는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 과다채무(Over-indebtedness),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박스 1 참조>.

〈박스 1〉 금융포용과 주변 개념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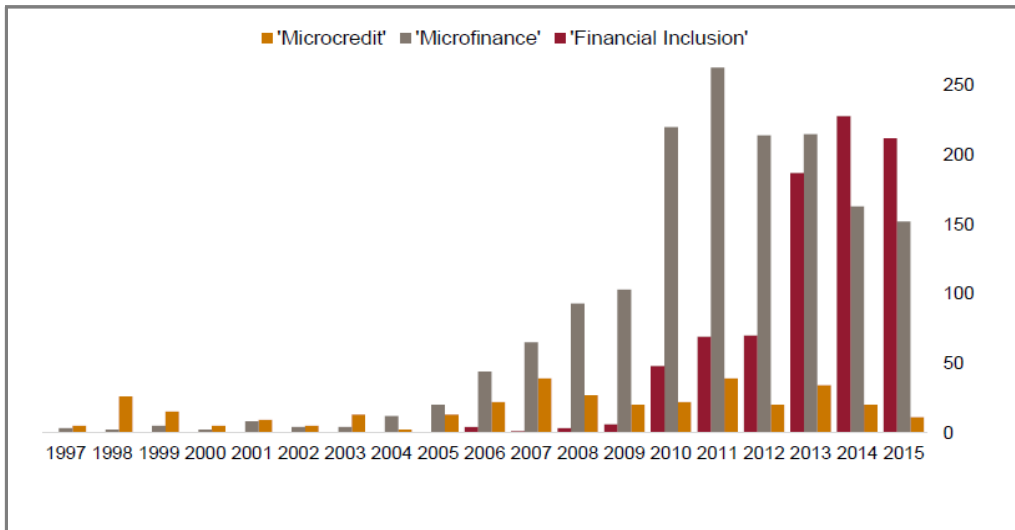
-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
 - 금융소외 계층은 교육, 주거, 고용 등의 경제적 기회를 잃는 사회적 소외와 다각도로 연계되어 있어 금융소외와 사회적 소외는 부정적 환류로 이어질 높은 가능성 존재
 - 금융포용은 모든 계층을 사회적 일원으로 포함한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의 일환
-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
 - 금융 발전과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의 효과적·효율적 제공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금융발전은 금융의 심도(depth)를 보는 반면, 금융포용은 금융이 넓이(width) 및 접근성(access)을 보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
 - 주로 민간에 대한 신용공여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되는 금융발전은 금융포용의 대체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
- 과다채무(Over-indebtedness)
 - 과다채무는 고비용 금융 이용, 저소득, 생애주기 사건, 상황변화, 소득충격, 지출급증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지속
 - 금융기회의 중복에 의한 다중채무 및 과다부채 문제는 업권 내 및 업권 간 신용정보의 집중화 및 공유를 통해 일정 수준 제한이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포용과 책임금융(Responsible finance)은 상호 영향력을 가지며, 책임금융의 달성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성하는 규제, 자율준칙, 금융역량과 밀접히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와 금융교육이 중요한 2개축이며, 금융교육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가 목적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에서 금융규제를 보완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준칙의 중요성을 강조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개념의 발전

사실 국제개발 분야에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access to finance) 향상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금융 접근성 향상의 대표적 사례로서의 소액대출(microfinance)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금융 포용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강조되기 시작하였을까? 이번 장에서는 금융 포용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시기를 살펴보고 동 개념이 소액대출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그림 2>는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 중 소액대출(Microcredit), 소액금융(Microfinance),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수치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금융포용’이라는 용어는 2006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그 사용 빈도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 금융 포용 용어 연도별 사용 빈도수



출처: Phil Mader, 2016

2010년 이후 금융 포용 개념의 본격적 등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먼저, 2010년에는 G20에서 ‘금융 포용’이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 총재가 세계은행-IMF 연례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금융 접근성(Universal Finance Access) 비전을 발표하며 금융 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또한, 2013년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 해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기본 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 ‘모두를 위한(for all, for everyone)’의 신념을 반영하여 ‘포용적인(inclusive)’ ‘포용(inclusion)’의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이기도 하다.

반면, 소액금융(microfinance) 개념의 사용은 2006년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²⁾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2014년은 금융 포용 개념의 사용수가 소액금융 개념의 사용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대표하는 개념이 ‘금융포용’에서 ‘소액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로 불리며 1970년대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을 시작하여 그라민뱅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액대출사업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기여함.

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 그룹(CGAP)에 의하면, 소액대출 혁명은 비공식 경제 내 빈곤 가구가 고객으로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현재 2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700억 불의 소액대출 산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나, 소액대출사업 모델은 소득 창출, 자산 생성, 위험 관리 등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확장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금융 포용 의제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금융 포용 의제는 이러한 수요에 기반하여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 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하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액대출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도 금융 포용의 강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무하마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점으로 국제개발분야에서도 소액대출사업은 엄청난 인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액대출의 빈곤감소 효과를 증명하고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이의 빈곤감소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임이 드러나자(Bateman 2012, Bateman, M. and Chang & H-J. 2014), 빈곤퇴치 도구로서의 소액대출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 인도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금리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액대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Mader (2017)는 소액대출사업이 금융 포용의 이름으로 여전히 수행되는 것을 보며, 소액대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금융포용이라는 새로운 라벨을 붙였다는 비판하기도 하였다.

다. 금융 포용 분야의 생태계와 지원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소액대출과 금융 포용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가장 분명한 차이는 소액대출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고객 범위의 확장을 불러오게 되었다(표 2 참조).

〈표 2〉 금융 포용 분야 생태계

공급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 = 고객		
전통적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소액금융기관	저축 이체, 송금, 결제 대출 보험 신용평가	소농가구 여성 이주자 청년 비정규노동자 초소형기업 중소기업	소외지역	
비전통적	금융서비스제공기업 통신사 핀테크 기업				농촌지역
					도시지역
중앙은행, 규제당국, 정책입안자					
정책수립 및 감독 = 정부					

출처: 저자작성

과거 소액대출의 경우, 주요 고객은 금융 접근성이 없는 빈곤층, 특히 여성들의 그룹 형태가 주요 고객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NGO 혹은 소액대출기관에 한정되었다. 또한 금융 서비스는 주로 소액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 포용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소액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분야 참여자를 포함하여 통신사와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하며, 서비스 역시 대출, 저축, 보험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송금, 이체, 결제서비스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뒤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고객의 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 포용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서는 인프라 구축,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 교육, 정책 자문 등을 들 수 있는데(표 3 참조), 소액대출과 같은 단일 상품 개발을 넘어 예금, 보험 등의 금융 상품 확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인프라 구축, 금융 문해 교육 및 정책 자문 등 지원방식 역시 확장되었으며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금융 포용 사업을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표 3〉 금융 포용 분야 지원방식

지원방식	사업 활동	대상
인프라 구축	디지털금융서비스 개발 ATM, 지점 확대	서비스 제공자 고객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상품 - 예금, 대출, 보험 금융서비스 - 지급, 이체, 송금, 결제, 구매	
금융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영업원 양성	
정책자문	정책, 법안 개정/신설 - 신규업종(모바일머니), 이자율한도, 예금담보 생태계 조성 - 신용평가체계, 고객보호, 정보보호	정부

출처: 저자작성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 포용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금융 포용에 대한 최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UN, G20, OECD의 논의를 조사하여 보다 금융 포용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한다.

2. 금융포용의 국제 사회 논의 동향

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금융 포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하에 포용성을 목표 전반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포용은 SDGs 17개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 목표별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 포용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SDGs 17개 목표 중 세부 목표에서 금융 포용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4〉 SDGs 내 금융포용 관련 목표

SDGs 목표	세부 목표
목표1. 빈곤	1.4.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유
목표2. 식량 및 농업	2.3 소규모 식량 생산자(특히, 여성), 가족농가, 유목민, 어부들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의 2배 증대를 위해 동등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목표3. 보건	3.8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에 있어 재무 위험 예방
목표5. 양성평등	5.A. 국가 법규를 준용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공평한 권리를 위한 개혁 단행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8.3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초소형, 중소 규모 기업의 공식화(formalization) 및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개발정책 증진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도국 자체 금융기관 역량 강화
	(지표) 8.10.2 은행, 금융기관 및 모바일머니서비스 계좌를 보유한 15세 이상 성인 비율
목표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9.3 적합한 가격의 대출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기업의 접근성 증진
목표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c 이주노동자 본국송금 비용을 3% 이하로 감축 및 5% 이상 비용 폐지
	(지표) 10.c.1. 전체 송금액 중 송금비용의 비중

출처: 저자작성

위의 목표들은 개도국 내 빈곤층, 취약계층, 소농 및 소규모 기업, 이주 노동자 등 제도권 내 금융 접근성이 약한 그룹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목표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과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은 금융 포용과 관련된 내용을 목표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표 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모바일머니서비스 계좌를 보유한 15세 이상 성인 비율’은 전통적 금융기관인 은행을 넘어 비전통적 금융기관의 금융 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송금액 중 송금비용의 비중’ 지표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개도국 내 주요한 재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높은 송금수수료를 지급했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SDGs에 어떻게 금융 포용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몇 개의 목표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DGs 1번 목표: 빈곤퇴치

빈곤층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Global Findex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이 빈곤 가정보다 은행 계좌를 보유한 비중이 높다(Demirguc-Kunt et al. 2015)고 밝힘으로써 소득 격차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반영하며, 금융소외로 인해 빈곤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빈곤층이 빈곤 감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축 등의 금융 서비스는 빈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빈곤 가정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자산을 축적하고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Brune et al. 2015; Dupas and Robinson 2009; Karlan et al. 2014; Pande et al. 2012). 빈곤층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식, 능력, 기술 등의 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Barro 1991).

또한, 디지털 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면 빈곤을 악화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M-Pesa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를 겪을 때 M-Pesa 이용자는 비이용자 보다 송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Jack and Suri 2014). 정부는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패를 줄이고 지원금이 의도된 수령자에게 전달되어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시적으로는 낮은 빈곤율은 주식시장과 은행의 대출 등과 관련이 있으며(Honohan 2004) 건전한 금융 시스템은 빈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소득불평등을 줄여 빈곤퇴치를 지원할 수 있다(Park and Mercado 2015; Beck et al. 2007). Beck et al.(2007)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한 바 있다.

2) SDGs 2번 목표: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촉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부들은 수확량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SDGs 2번 목표인 기아감소와 식량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95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다(FAO 2015).

농민들이 신용과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면 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농민들은 보험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은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실제 특정 날짜까지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저축상품을 이용한 말라위의 농가들은 투자를 13% 늘리고 작물 생산량을 21%까지 증대할 수 있었다(Brune et al. 2015). 저축상품을 이용하면 농부들은 농한기에 비용을 관리할 수도 있다. 농촌 가정은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 계좌를 이용하여 식량에 대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Prina 2013).

특히 디지털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농민들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보험과 같은 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농들은 디지털 결제와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3) SDGs 3번 목표: 보건 증진

금융 서비스는 빈곤층의 의료비용을 관리하고 건강악화에서 회복하여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부담금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Priyanka et al. 2011; Krishna 2006), 효과적인 공공 보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Pannarunothai and Mills 1997; Frenk and Knaul 2002). 또한, 건강이 악화되면 일할 수 없거나 의료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는 소득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의료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는 건강악화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데, 특히, 감염 취약성, 임신, 출산 등 여성과 관련된 보건 문제에 대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여성들은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해결하고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상품은 의료비용을 줄이고 의료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Women's World Banking 2012).

5) SDGs 5번 목표: 양성평등 강화

여성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

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더욱 필요로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Demirguc-Kunt et al. 2013).

저축계좌는 여성이 신용을 쌓고 향후 투자를 위해 수익을 저축하는 안전하고 공식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Anderson and Baland 2002; Dupas and Robinson 2009, Karlan and Morduch 2010, Slama, 2014). 동시에 디지털 결제로 생성된 금융 거래내역은 전통적인 신용 자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여성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도난위험과 관리비용을 낮춰 여성 소유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격 등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수 있다(Malhotra et al. 2012).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여성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공서가 멀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면 많은 여성들은 사업을 등록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 등록절차와 비용지불을 디지털화하면 공식적인 사업을 장려하고 기업 소유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나. G20와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2009년부터 국제적 금융개혁과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금융 포용 논의가 시작된 이래, G20에서도 금융 포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2010년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박스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G20 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포용을 개발의제(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에 포함시키고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출범하였다.

금융 포용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된 G20 혁신적 금융포용 원칙은 리더십, 다양성, 혁신, 보호, 역량강화, 협력, 지식, 비례성, 규제체계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원칙의 이행은 금융포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 마련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원적 접근이 가능하다.

G20는 리더십, 다양성, 혁신, 협력, 지식, 규제체계에 관한 원칙 이행은 직접적으로 금융포용을 확대하는 원칙인 반면, 보호, 역량강화, 비례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와 병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진 가능한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5〉 G20 혁신적 금융 포용 원칙

구분	항목	내용
직접적 추진 가능	리더십 (Leadership)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금융포용에 대한 정부의 약속
	다양성 (Diversity)	서비스공급자의 다양화와 함께 빈곤층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예금, 대출, 지급결제 및 이체, 보험)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지속가능 하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혁신 (Innovation)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혁신을 촉진
	협력 (Cooperation)	정부 내 명백한 책임과 조율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파트너십 및 직접적 자문을 장려
	지식 (Knowledge)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 및 진척상황 측정을 시행하고, 규제당국과 서비스 공급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진적인 확대(test and learn) 접근법을 고려
	규제체계 (Framework)	국제적인 기준, 자국 내 상황을 반영하는 규제 체계를 고려하고, 경쟁 환경을 지원
간접적 추진 가능	보호 (Protection)	정부, 공급자, 소비자의 역할이 인식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장려
	역량강화 (Empowerment)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개발
	비례성 (Proportionality)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과 편익에 비례하면서 기존 규제 의 공백과 장애요인에 기반을 두는 정책 및 규제 체계를 조성

출처: GPFI, 2010

이어 2012년 멕시코시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금융포용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기본 금융포용 지표(Basic Set of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를 채택하였다. 금융포용의 진전을 위해 금융포용 경험의 국가 간 공유, 금융교육 국가 전략 및 원칙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이행방안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2013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는 기본 금융포용 지표를 확장한 금융포용지표(Set of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를 채택하였다(표 6 참조).

G20 금융포용지표는 크게 측정관점에서 이용도, 접근성, 품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용도는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근성은 물리적 위치의 접근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성, 정보 운용성으로 나뉘어진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있어서는 금융 이해력, 시장행위 및 소비자 보호, 이용 장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Global Findex, Global Payments Systems Surveys, IMF의 Financial Access Surveys에서 추출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중 공식적 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기본 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6〉 G20 금융 포용 지표

범주	상세지표	출처	측정관점	
은행이용	공식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비중	WB Global Findex	이용도	개인
	성인 인구 1,000명당 계좌보유자 또는 계좌의 수	IMF Financial Access Surveys		
대출보유	금융기관에 최소 1개의 대출 잔액이 있는 성인의 비중	WB Global Findex		
	인구 1,000명당 보험가입자	IMF Financial Access Surveys		
은행이용	금융기관 중소기업 계좌 비중	WB Enterprise Surveys	이용도	기업
	전체 계좌 수 대비 중소기업의 계좌 수 또는 전체 계좌보유자 대비 중소기업 계좌보유자 수	IMF Financial Access Surveys		
대출보유	금융기관에 대출잔액 또는 대출한도가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	WB Enterprise Surveys		
	전체 대출 건수 대비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 수 또는 전체 대출 건수 대비 중소기업 대출 건수	IMF Financial Access Surveys		
보험	인구 1,000명당 보험가입자			
비현금결제	1인당 비현금결제수(수표, 직불/신용카드 등)	WB Global Payments Systems Survey	이용도	개인
모바일결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성인의 비중	WB Global Findex		
계좌이용 빈도	은행계좌의 사용빈도가 높은(월 3회 이상) 성인의 비중			
저축 경향	전년도 한해 금융기관에 저축한 금액			
송금	국내외에서 송금을 받은 성인의 비중	Gallup World Poll		
이용 지점	성인 100,000명당 지점 수	IMF Financial Access Surveys	접근성	물리적 위치
	성인 100,000명당 ATM 수 또는 1km ² 당 ATM 수			
	주민 100,000명당 POS 단말기 수	WB Enterprise Surveys		모바일 기기
E-money	모바일결제를 위한 E-money 계좌보유 수			정보 운용성
정보처리 상호운용성	ATM의 정보처리상호운용성			
	POS 단말기의 정보처리상호운용성			
금융 지식	금융지식 점수	WB Financial Capability Surveys OECD National Financial Literacy and inclusion Surveys	품질	금융 이해력
재무적 행동	긴급 자금조달 방법	WB Global Findex		시장행위, 소비자 보호
공시의무	공시의무 항목	WB Globa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urvey		
분쟁해결	공식적인 내 외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이용 비용	기본계좌 개설시 평균비용			
	기본계좌 유지시 평균비용(연간수수료)			
	계좌이체 시 평균비용			이용장벽
신용 장벽	신용상태 악화 시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비율	WB Enterprise Surveys OECD SME Scoreboard		
	대출시 선도기업과의 격차	WBG Doing Business		

* 금융 포용 기본 지표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됨.

출처: GPFI, 2013

다. OECD DAC의 금융 포용 관련 모니터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포함한 개발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여국의 지원 내역을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라는 목적코드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한다.

OECD DAC에서 금융 포용과 관련된 CRS 코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CRS 코드 중 금융 포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코드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라는 항목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 CRS 코드는 공식적 금융 분야를 포함한 소액대출과 같은 비공식 금융 분야와 금융 문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농업 관련 분야 CRS 코드 하에 ‘농업 금융 서비스(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라는 하위 코드를 두어 농업 분야에서의 금융 서비스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7〉 금융 포용 관련 OECD DAC CRS 코드

CRS코드	코드 소개	포함 내용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Financ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금융 분야 정책, 기획 및 프로그램; 제도 역량 강화 및 자문; 금융 시장 및 시스템 관련
24020	통화 제도 Monetary institutions	중앙 은행
24030	공식 금융 기관 Formal sector financial	모든 공식 금융 중개기관; 크레디트 라인; 보험, 대부 및 벤처캐피탈 관련
24040	비공식/준공식 금융 기관 informal/semi-formal financial	Microcredit,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s, etc.
24081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내 교육/훈련 Education/training i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Agriculture		
31193	농업 금융 서비스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대출, 작물 보험을 포함한 농업분야 내 금융 중개 관련

출처: OECD DAC Stats

한편, 개발재원 흐름 측면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재원 외(Resource flow beyond ODA)라는 항목으로 ODA를 제외한 여러 유형의 개발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 포용 논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송금이다. 본국송금액은 ODA,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보다 금액규모, 안정적 성장세 측면에서 우세한 경향에 주목하여 송금액을 추적하고자 하는 코드를 신설한 바 있으며, OECD DAC는 저소득국의 경우 본국송금액이 국가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제적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본국송금액이 회복력에 있어 중요하게 기여 가능한 개발재원임에 착안하였다.

또한 OECD DAC는 본국송금액의 개발(development)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인지하며,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본국송금액 분야에 대한 관심과 본국송금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가속화를 공여국들에게 요청함에 따라 2016년 OECD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은 본국송금액 분야의 ODA 재원의 쓰임에 대한 공식적 통계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값 ‘본국송금액 용이, 장려, 최적화(Remittance facilitation, promotion and optimization)’를 신설함으로써 송금 분야 사업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8 참조).

〈표 8〉 송금 관련 OECD DAC CRS 코드

CRS 코드	코드 소개	포함 내용
24050	본국송금액 용이, 장려 및 최적화 Remittance facilitation, promotion and optimisation	송금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포함. 또한 송금 및/또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포함
16062	통계 역량 강화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송금 관련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역량강화 포함
43082	연구/과학적제도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송금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함

출처: OECD DAC Stats

3. 금융 포용의 최신 동향

금융 포용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금융 포용 생태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금융 포용의 최신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금융 포용 사업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저소득층(BOP)³⁾ 시장을 위한 시장세분화(Segmentation)

그 동안의 금융 포용 관련 사업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소득기준에 있어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로 상위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보다 많은 빈곤층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포용 분야의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금융소외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적자본 및 지리적 요인을 넘어서 사회적 규범,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차별, 정치·사회적 갈등, 기후·환경적 위기 상황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세분화는 빈곤층의 생활방식, 행태, 성별, 연령, 지역적 특징에 따라 고객 그룹의 생계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최빈곤층(Extreme poor), 소농 가구(Smallholder families), 난민 및 위기에 영향을 받은 그룹(Refugees/crisis-affected populations), 여성(Women), 비정규 노동자(Occasional workers), 저소득 사업자(Low income business owners), 청년(Youth), 이주자(Migrants) 등 유형에 따라 다른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농의 경우에도 상업적 소농인지 비상업적 소농인지에 따라 금융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비상업적 소농의 경우에는,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정에서 소비하게 되므로 이러한 가정에서 필요한 금융 수요는 농업 활동과 직접적 관련 없는 저축 혹은 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업적 소농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농업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CGAP은 이를 고객 중심주의(Customer-Centrality)로 규정하며, 금융 포용의 대상자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고객으로 간주함으로써 고객의 수요, 선호도,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 <박스 2>는 BOP층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내용이다.

3) BOP(Bottom of Pyramid) : '피라미드의 하부층', 즉 소득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연간소득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의미하고,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소비자로서 5조 달러 잠재적 구매력을 가진 계층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주목

〈박스 2〉 BOP층을 위한 고객중심의 의미

- 비공식적이고 불규칙한 소득: BOP층은 중산층 가정보다 소규모 농장, 소규모 기업, 비공식적인 고용과 일용직 노동으로 수입을 얻기 쉽다. 또한 비공식적인 일거리가 불규칙한 경향이 있어 빈곤층 가정들은 여러 재원을 모아 사업과 가정재정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Collins, Morduch, Rutherford, Ruthven (2010)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소득은 하루, 일주일, 혹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저축과 신용을 통한 소비는 BOP층에게 특히 중요하다. BOP층은 건강악화, 절도, 작물파손 등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 또한 가치 있는 상품이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비공식적인 소득을 얻는 BOP 고객은 “진입로”를 필요로 한다. 소규모 기업과 농장이 많다는 점은 소액대출에 대한 BOP층의 수요가 있으며, 기업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지출(spending)과 소비(consumption)에서의 차이점: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본적인 욕구에 지출하며, 중산층과는 달리 비공식적인 시장과 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에서 지출한다. BOP층은 부유한 고객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구매에 대한 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BOP층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지을 때 한 번에 방 하나를 짓는다면, 주택 개조용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금융 수요는 생애주기 혹은 성별에 따라 고객층별로 다르므로 BOP의 특정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교육과 가정 마련, 중년층의 가정은 사업투자, 노년층들은 소득 및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가족 내의 역할에 따라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출처: CGAP, 2014a

또한,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GAP(2014)에 따르면, 금융 소외 계층 그룹은 공식적 금융 서비스는 아니지만 가족, 이웃 등을 통해 비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돈,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은행의 Global Findex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이 공식적인 기관을 피하게 되는 주된 이유임을 발견했다(Demirguc-Kunt and Klapper 2012). 따라서,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식 서비스가 비공식 서비스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특히 문맹률이 낮거나 언어장벽이 있거나 신기술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전달 채널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박스 3 참조).

〈박스 3〉 금융 포용을 위한 고객 중심 사업 사례

- 디자인 회사인 CGAP과 Continuum은 파키스탄의 Habib Bank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여성 빈곤층을 위한 제품 개발에 협력하였다. 동 사업에서 금융 소외의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문맹자였고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을 사용하는데 신뢰와 경험이 부족하므로 그들은 종종 거래를 돕는 가족의 남성 구성원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시각적인 안내와 구두(口頭) 설명을 사용하여 여성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talking ATM"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출처: McKay and Seltzer, 2013

금융 포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고객 중심의 접근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포용성의 핵심과제인 ‘접근과 사용의 간극(gap)’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행된 금융 포용 상품들의 실패 중 하나는 신속한 등록과 낮은 사용률 간의 간극이었다. 이러한 격차를 이해하려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점에서 고객의 삶에 부합하는지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모바일 기기 및 IC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핀테크(Fintech)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되고 있는 경향과 BOP에게 금융 솔루션을 전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촉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및 모바일 관련 기술과 결합된 예금, 대출, 결제, 송금, 보험, 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유형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전달방식으로는 BOP 계층이 소재하는 농촌 및 소외 지역 대상 비즈니스에 있어 높은 서비스 비용, 낮은 수익성, 접근성을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긴 소요 시간과 같은 제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저개발국에서 무선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와 기기 사용 확산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체, 송금, 저축, 결제, 구매, 대출 등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특히 휴대전화(2G폰, 스마트폰 모두 포함)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핀테크 적용의 대표적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M-Pesa로 영국 Vodafone이 케냐에 2007년 세운 통신사 Safaricom이 휴대전화(2G폰, 스마트폰 모두 포함)를 기반으로 모바일머니 서비스이다. M-Pesa는 현재 케냐에서는 1,800만 누적 가입자가 사용 중이고, 2016년 12월 기준,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가나, 인도, 이집트 등 9개국에 추가 진출하였으며, 사업 대상국에서 약 28만 명의 영업원 및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M-Pesa는 초기에 통신사 간의 합작회사로 시작하였으나, M-Pesa가 여러 국가에 추가 진출 하면서 각 국가 내 은행과 합작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가 결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추세가 증가하였는데, 금융서비스공급자(FSPs, Financial Service Providers)가 모바일 통신사(MNOs, Mobile Network Operators)와 결합 하여 핀테크 기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업, 교육, 보건, 에너지, 물 등 타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박스 4 참조). 여러 공여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기획 하는 CGAP 역시, 핀테크 적용,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요소의 결합,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재원 결합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가나 및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실험 (testing and piloting)하고, 이를 타 지역 및 타 국가로의 확대·재생산할 계획에 있다.

〈박스 4〉 Safe Water Network 사례

- 수십억 달러가 농촌 지역 급수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으며, 약 10억 인구가 깨끗한 급수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농촌 급수 시스템의 30~60%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Safe Water Network는 2021년까지 가나와 인도 내 500개 이상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2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급수 기업을 규모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하우, 시장 관련 지식 및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를 수립하기로 함. 규모화를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사례를 수집하고,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해당 분야를 선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을 접목하고자 하며, 이는 현금 거래 대비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들의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는 전자금융이체(EFT) 통합 지원 부서(Back Office Integrated EFT), 현금이 필요없는 급수 ATM(Cashless Water ATM), 가구연계를 위한 스마트미터(Smart Meters for Household Connections)등이 있음

출처: CGAP 연례회의 발표자료, 2017

위와 같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각자의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 아래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즉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마련에 있다. 금융포용 관계자들 간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장기간의 협상, 높은 수준의 통합을 추구함에 따라 고비용, 장시간 소요 및 고객의 수요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더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개방형 구조 환경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고객의 수요충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각자 전문 기술 및 사업영역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유리하기에 핵심 전문성 집중 및 심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형 구조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무료로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전달에 관련된 기술 및 전문성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책정되고, 이해관계자들 간 기술 및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오히려 폐쇄형 구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한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고 이는 시장의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점을 제시한다.

다. 금융 포용 분야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전통적 금융기관과 비전통적 금융기관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금융 기관의 금융 포용 사업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정부 역시 기존 금융 분야에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간극을 채우는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금융기관들을 지원해 왔으나, 오늘날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다분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유형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금융포용 제고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체 공공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 인프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기도 하는데, 인도의 India Sack이라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단순화된 결제 시스템이 결합하여 금융포용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기반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이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은 공적영역과 민간부문 어디에서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통용되는 인프라 구축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개방형 구조에 적합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신규 공급 참여자가 인프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가 용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수 취합과 같은 개인-정부 간 거래, 사회복지성 지출과 같은 정부-개인 간 거래 등 그 자체로 국내 자금흐름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금융포용 측면에서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가의 보조금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세수 확대 등과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전반의 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 및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금융 포용 비즈니스는 수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객의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비전통적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기존 표준과 제도 하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표준과 제도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재정비

하는 작업을 통한 환경조성의 역할이 정부에게 요구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GAP은 금융 포용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⁴⁾ 접근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4) 규제샌드박스 :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모래를 깔아주는 것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제3장 금융 포용 주요 사례: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번 장에서는 미얀마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금융 포용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KOICA 금융 포용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얀마를 사례 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가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떠오름으로써 많은 공여기관들이 최근 미얀마 내에 금융 포용 사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조사 기간 중 CGAP의 연례회의가 미얀마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공여기관의 금융 포용 관련 최신 동향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 미얀마 금융 부문 현황

미얀마 내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국영은행, 지역은행 및 소액대출 기관들이 있으며, 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주로 기업고객을 담당하고, 개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로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1,890개의 은행 지점이 있으며, 100,000명 당 3.7개의 지점을 사용하는 수준이며 2015년부터 해외 은행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기관 내 계좌 보유비율 23%이며, 소득 하위계층 40% 중에서는 약 16%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 대출의 80%가 공공 및 대기업에 집중함에 따라 개인 대상 대출은 일부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소액 대출은 특수목적 국영은행(MADB, MLSE 등)에서 하고 있으나 담보를 필요로 하며, 협동조합의 경우 시장규모도 크고 실제로 월 2% 이자 정도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블랙머니 형성으로 인해 민원율이 높은 실정이다.

미얀마 가계 차입 원천 비중 중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비제도권(친인척 30.9%, 대부업자 22.6%, 상점 13.7%, 유통업자 4.7%) 차입 비중이 72%이며, MFI는 15%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소액대출기관은 2016년 3월 기준 공식적으로 168개 기관이며, 이 중 2/3은 강제 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소액대출 기관인 Acleda, ASA, Basix, BRAC이 진출해 있다.

미얀마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8% 이상 되고, 인플레이션도 9% 이상이나 임금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매년 무역 적자 폭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의 소득에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얀마 소액대출 시장은 구조상 팽창하는 시기으로써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용에 대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액대출기관들은 판단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영업 허가 범위는 외국인이 최소 주식 1주라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게 요청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국가의 산업을 양성하고, 지역 은행에게 대출을 해줘서 지역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줌으로써 지역 은행을 부흥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많은 도전과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저금리로 지역 은행에게 달러 통화 대출이 가능할지라도 지역 은행은 달러 대출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무역 및 재정적자로 인해 통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지역 은행(대출이자 13%)에게 4~5%로 대출을 제공하더라도 환율에서 15% 손실이 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수출 기업에게 외국계 은행 자금이 닿지 않게 된다. 또한 미얀마는 신용평가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용에 기반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신용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중 은행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 인가를 받아 진출해 있다. 이는 미얀마가 외국계 은행 진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2011년에 제정된 소액대출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규제감독국(Financial Regulatory Department, FRD)의 관리를 받게 된다. 미얀마에 진출한 전체 해외 소액대출 기관 중 9개가 우리나라 기관으로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 분야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출한 주요 기관은 KB 국민은행(KB Microfinance Myanmar, 2017년 3월 영업 개시), 신한카드(신한 Microfinance, 2016년 9월 영업 개시), 농협(농협 Microfinance Myanmar, 2017년 2월 영업 개시), 하나은행(하나 Microfinance Myanmar), 전북은행 등이 있으며,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관으로서 미얀마 내 국내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소액대출 영업은 초기 1년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그 이후 규제감독국의 심사를 통해 정식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소액대출을 대출하였을 경우 가산점을 획득하며, 이는 향후 영업 가능 지역을 확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양곤 내 46개의 타운십(township: 행정 구역 단위)에서 배정받은 지역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대출의 형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주로 5~10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상호보증을 하는 형식인 그룹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30%(월 2.5%)로 고정되어 있다. 그룹 대출 시, 강제예금(compulsory saving) 제도를 두어 대출금액의 5% 예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그 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택대출, 농업대출 등 차별화된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 포용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휴대폰 보급률의 경우, 미얀마는 최근 휴대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로서 휴대폰 사용률이 2013년 기준 10%에서 2016년 초 기준 62%를 기록하여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 80%는 스마트폰 사용자이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웨이브머니(Wave Money)라는 통신사 Telenor와 Yoma Bank 간의 합작 회사가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하였다.

2. 미얀마 금융 포용 사례

미얀마에서는 금융 포용 사례로 세 가지 사업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사업 내용과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생계 및 식량 안보 신탁기금(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으로 여러 공여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다자기금이다. LIFT는 미얀마 농촌 지역 빈곤층의 생계 및 식량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여러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 포용은 하나의 중점분야로서 지원되고 있다. 이는 KOICA 국별 사업의 대표 중점 분야인 농림수산분야 내 금융 포용 분야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KOICA가 지금까지 수행한 금융 포용 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농촌 커뮤니티 내 소액대출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 사례 분석을 통해 KOICA 농촌 소액 대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는 UNCDF의 금융 포용 활동 중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UNCDF는 UNDP 산하에 설립된 기금 형태의 기관으로서 금융 포용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UNCDF가 Challenge Fund를 통해 지원한 송금 서비스 기업 사례와

미얀마 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Wave Money에 지원한 금융 문해 교육 사례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금융 포용 분야가 소액대출에 한정되지 않고 송금 혹은 금융 문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특히, Wave Money의 금융 문해 교육 사례는 호주 외교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여기관이 국제기구와 민간과 어떻게 협력하여 동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사례는 ‘웨이브머니(Wave Money)’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이다. 웨이브머니는 미얀마 민간은행인 Yoma Bank와 노르웨이 통신업체인 Telenor가 미얀마에서 합작으로 출시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서 미얀마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 사례는 전통적 금융기관과 비전통적 금융기관인 통신사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모델을 파악하고자 선정하였다. 웨이브머니 사업모델은 KOICA과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민간과 디지털금융 사업 모델을 기획하는 데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가. 생계 및 식량 안보 신탁기금(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

1) LIFT 전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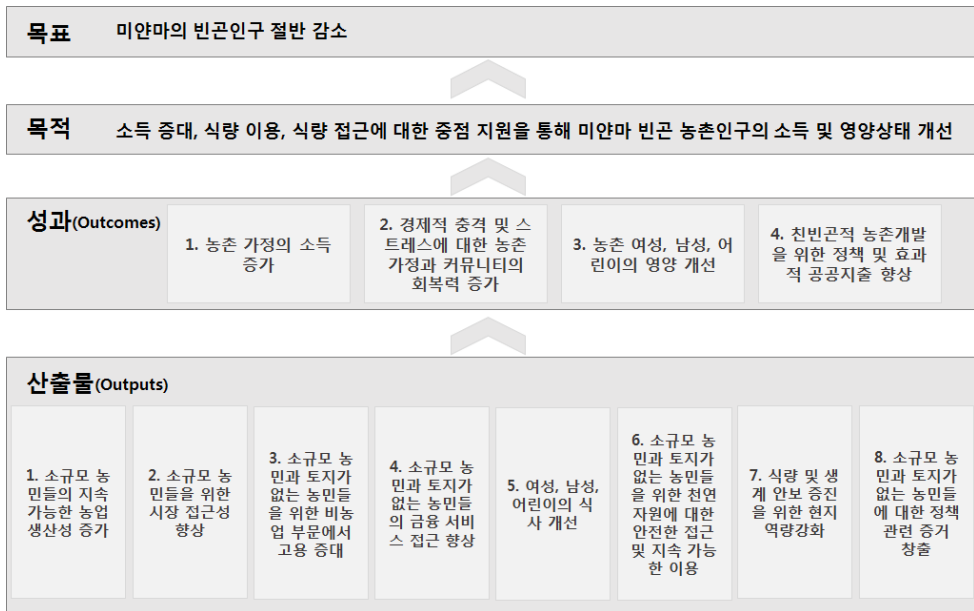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미얀마 농촌지역의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다자기금이다. 미얀마 LIFT는 영국, 유럽연합, 호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의 다양한 공여국과 민간부문의 Mitsubishi Corporation이 기여하는 신탁기금이다. 현재까지 14개의 공여국들이 LIFT에 4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가 펀드 매니저로 LIFT의 자금을 관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위한 역할을 한다. LIFT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LIFT 2017a).

LIFT는 혁신과 학습을 위해 공동의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안보, 농촌개발에 대한 정책참여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수입, 식량 확보, 식량 안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미얀마 빈곤층의 생계수단 회복과 영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IFT는 1. 농촌가구의 소득증가, 2. 가난한 농촌가정과

지역사회의 실패와 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가, 3. 여성·남성·어린이의 영양개선, 4. 친환경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 및 실제 공공지출 개선 등 네 가지를 성과(Outcome)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물의 하나로서 금융 포용 요소(소규모 농민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LIFT 성과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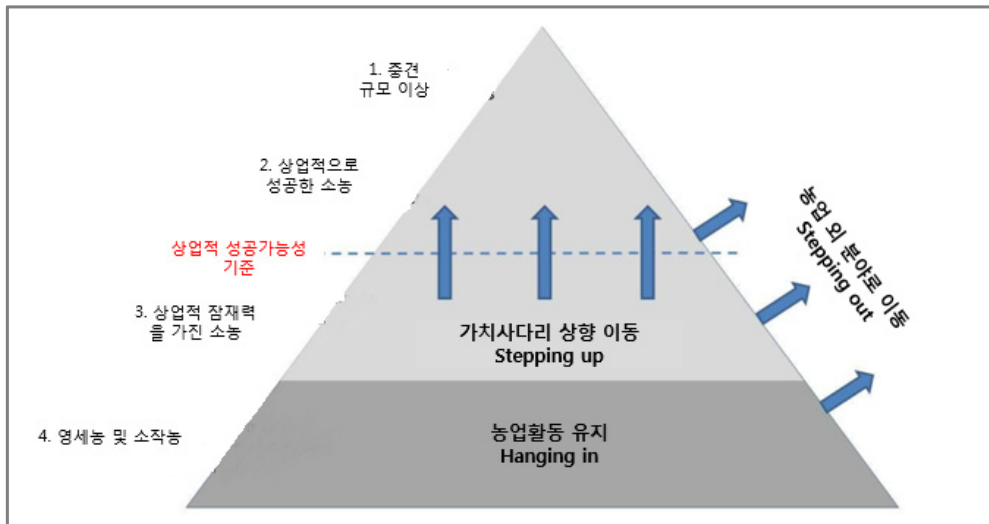
출처: LIFT STRATEGY OCTOBER 2014

2) LIFT 주요 대상

LIFT 프로그램은 토지가 없는 소작농들을 포함한 농촌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모든 소규모 농민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농촌 가정을 <그림 4>와 같이 세분화하여 생계 전략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 층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LIFT는 상업적 능력을 기준으로 농촌 계층을 중·대규모 농민, 상업적으로 성공한 소농민,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소농민,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농민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토지와 노동 또는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농촌 가정은 노동, 토지, 시장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가치 사다리의 위로 이동해(step up)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혹은 농촌 지역주민들은 농업에서 벗어나(step out) 보다 생산적인 경제부문으로 생계를 전환할 수 있다.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거나(step out)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hang in) 상업적 능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농업을 안전망으로 이용하여 식량과 영양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4〉 LIFT 농민들에 대한 생계 전략



출처: LIFT STRATEGY OCTOBER 2014

3) LIFT 내 금융 포용 분야

LIFT 프로그램은 2013년 금융 포용 요소를 사업에 접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얀마가 2012년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LIFT의 전략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LIFT 전체 예산의 약 39%를 지원하는 영국 DFID의 경우, 이를 계기로 기존에 DFID 자체에서 미얀마에 시행하던 소액대출사업프로그램을 종료하기도 하였다. LIFT 프로그램 내 금융 포용 사업은 소농들에게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미얀마는 미얀마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MADB)에서 벼농사의 경우 1 에이커당 100불의 시즌 대출(seasonal credit)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는 농업 투입비용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소농들은 고이자율의 비공식 대출을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1년 마이크로파이낸스법이 발족한 이후 소액대출기관 역시 연이율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사업 대상지가 농촌인 경우는 적었으며, 소액대출가능 최고 금액인 500 불 역시 소농들이 새로운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FT는 금융 서비스의 대상을 소농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까지 확장하였으며, 더불어 소액금융기관과 은행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이들 기관이 소농들을 위한 적절한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액금융기관과 금융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다양한 소농 고객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는 신설된 소액금융기관 혹은 지속가능성이 낮은 소액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기술 지원,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은행 서비스를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을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표 9〉 LIFT 금융 포용 관련 사업 논리 모형

금융포용 목표	지표	Milestone			Target
		2015	2016	2017	2018
Pr 4: 소규모 농민 과 토지가 없 는 농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	Pr 4.1: LIFT가 지원하는 MFIs 중 자생적으로 비즈니스를 운 영할 수 있는 기관의 수	2	2	10	14
	Pr 4.2: 금융서비스에 접근 가 능한 LIFT 사업 수혜자 가구 수 (가장의 성별 수집)	574,746	890,856	1,149,492	1,436,865
	Pr 4.3: 목적에 따른 금융서비 스 접근 가능한 LIFT 사업 수혜 자 가구 수 (가장의 성별 수집)	272,000	472,016	672,033	772,041

출처: DFID

위의 <표 9>와 같이 LIFT 내 금융 포용 사업의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금융 포용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리모형은 소규모 농민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해 세 가지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달성 목표(milestone)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LIFT가 지원하는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 MFIs) 중 자생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수이다. 이는, LIFT가 소액금융기관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기관들이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소농들에게 보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LIFT 사업 수혜자 가구 수이다. 세 번째는, 목적에 따른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한 LIFT 사업 수혜자 가구 수인데, 이는 대출 사용 패턴을 친빈곤(pro-poor), 농업 운전자본, 농업 투자, 소규모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표 10〉 LIFT 금융 포용성 프로그램(2015-2018) 개요

지원분야	기관명	프로젝트 명	주요 활동
소액금융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	Cordaid Investment Management BV	Partial Risk Guarantee Fund	소액금융 기관을 위한 역량개발, 소액 금융 지원에 대한 접근
	GRET	Chin microfinance institutions/ Flood response in Chin	시골 금융시장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 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Chin 지역 소액금융의 제도화 강화
	GRET	Creation of a Microfinance Institution in the Dry Zone	저소득층의 생활 활동에 책임 있는 금 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 존 (Dry Zone)에 소액 금융기관 설립
	IFC	Capacity building for Inclusive Financial Sector	미얀마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액 금융 개발
	PACT (MARC)	Myanmar Access to Rural Credit through Institutional Strengthening (MARC)	지역 소액 금융 기관의 기술역량을 구 축하여 대상 고객에게 우수한 소액 금 융 서비스 제공
세분화된 고객 별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PACT	Myanmar Access to Financial Inclusion (MAFIN)	빈곤층을 위한 소액 금융 서비스
	PACT	Flood Response	대출 상환, 추가 대출금 지급, 생활 개 선을 위한 현금 송금
	PACT	Rakhine Access to Financial Inclusion (RAFIN)	농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저축 등 빈 곤층을 위한 소액 금융 서비스
	Proximity Designs	Financial Inclusion—Moving Ahead	농작물, 기업, 이주, 장비 대출
	UNCDF-Micro Lead	Support to Savings-Led Microfinance Market Leaders to Enter Myanmar (MicroLead Expansion Programme)	그린 필드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저축 주도 모델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Vision Fund International	Flood Impact and Rehabilitation	홍수피해 농가의 대출 상각, 홍수피해 고객에 대한 현금 송금
	World Visionr/ Vision Fund	Financial Inclusion for the Uplands	가난한 소액 금융 서비스
	Yoma Bank	Yoma Bank Agri-Business Finance Programme (Yoma Bank AFP)	농업기계구매 목적 대출, 기술 자문 등

출처: LIFT, 2016 참조 저자재구성

DFID는 LIFT에 대한 평가에 있어 농촌 지역의 생계에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액대출사
업은 매우 협소한 영역이며, 금융 포용은 개별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점에
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소액대출사업이 소농의 식량 안보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농촌 지역의 성장을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함을 언급한다. 이는 소액대출규모
가 너무 적고 단기적이라는 데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LIFT의 금융 포용 지원은 소액대출기
관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성장하게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규모의
자금을 장기로 빌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UNCDF의 금융 포용 사업

UNCDF는 금융 포용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미얀마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1) UNCDF 미얀마 금융 포용 포트폴리오

첫째, 미얀마 내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에 7백만 달러 지원을 받아 MicroLead라는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MicroLead는 2개의 MFIs(ASA, Alliance)와 ACCU와 파트너십을 통해 150,000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며, 여성 및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UNCDF는 미얀마의 MicroLea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융 포용성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MicroLead는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소매 서비스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개발 전반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열악한 시장에서의 실천규범과 표준을 형성하는 ‘시장 선두주자’의 촉매역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투자를 스마트한 보조금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출 포트폴리오를 자본화하거나 채용자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은다. 한편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유연한 상품을 대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UNCDF는 프로그램 종료(2017) 시 까지 저축에 초점을 맞춰 적절한 수요 중심의 합리적인 가격의 책임금융 및 비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농촌거주자 등 약 10만 명의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접근을 증가시키고자 한다(LIFT 2017i).

둘째, 2014년에는 Making Access Possible(MA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내 금융포용 베이스라인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금융포용 로드맵(Financial Inclusion Roadmap, FIRM)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2015년 정부에 의해 승인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정부 부처에게 규제 수립 관련 증여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 지역의 MFIs나 은행 중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관에게 지역 통화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2월 UNCDF는 처음으로 Pyae Mahar Services Ltd. 라는 미얀마 소유 MFIs에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3년 만기 대출로서 3억 Myanmar Kyats 규모이다.

넷째, 디지털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 금융 감독자들을 위한 훈련 및 정책 지원, 미얀마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대상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호주 외교부와 UNCDF SHIFT 프로그램과 Wave Money와 협력하여 금융 문해 어플리케이션(financial literacy app)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UNCDF SHIFT Challenge Fund 프로그램의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UNCDF SHIFT 챌린지펀드(Challenge Fund) 사례

가) SHIFT 챌린지펀드 개요

UNCDF는 2014년에 호주 외교통상부(DFAT), 네덜란드개발은행(FMO), UNCDF가 각 690만 불, 20만 불, 120만 불 출자하여 약 830만 불의 자금을 모집해 ‘SHIFT(Shaping Inclusive Finance Transformations, 금융포용변화형성) Challenge Fund’를 결성하였고, 2,500만 불을 추가로 2020년까지 모집할 계획이다(표 11 참조).

펀드의 목적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의 금융서비스 사용의 양성화로의 이전 도모, 생산적 투자, 소비 안전성, 재산 소유권에 대한 증진, 포용적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는 빈곤 및 취약성 감소의 목표를 달성에 기여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인센티브 제공, 금융기관들의 행동변화 주도 및 폭넓은 생태계 조성의 접근법을 택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 목표로는 2020년까지 음성적 금융체계에서 고부가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 6백만 명 양성화하는 데 있으며, 수혜자 대상 6백만 명 중 60%가 여성인 점에 주목 젠더 렌즈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11〉 UNCDF SHIFT Challenge Fund 자금모집 현황

	호주 외교부	네덜란드 개발은행	UNCDF	Unfunded
2014	356,500	0	204,044	0
2015	2,037,415	200,000	417,185	0
2016	2,758,666	0	342,580	3,133,620
2017	1,793,991	0	238,902	6,920,875
2018	0	0	0	6,909,192
2019	0	0	0	4,269,132
2020	0	0	0	3,848,472
Total	6,946,572	200,000	1,202,711	25,084,291

출처: 출장자료

SHIFT Challenge Fund의 투자대상은 CLMV⁵⁾ 국가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제공, 대출, 보험, 해외송금, 지급결제, 저축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영역으로, 주제별 공모 형태로 1건당 15만 불~70만 불((약 1억 6,000만원~7억 6천만원) 규모로 지원금, 대출, 지분투자, 보증 등의 형태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고객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행동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의 다양성 및 가격적정성 증대,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의 접근성 및 사용 수준 제고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동 펀드를 통해 미시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이 금융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고, 습득정보에 기반한 금융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고, 소득창출 활동에의 투자, 현금지출 및 위험관리 역량강화, 개인, 사업체, 정부와의 안전하고 낮은 비용의 금융거래를 통한 생계 및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외부요인에 대한 취약성 감축, 빈곤 감소, 소득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금융 포용에 대한 접근성

(1) 합법적 금융 서비스 제공

UNCDF는 개발도상국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을 은행이 독점하는 금융시장의 실패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포용 제고의 저하 뿐 만 아니라 불법적 금융 거래 및 행태 등이 발생 및 확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함을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UNCDF는 최근 IT 기술이 금융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비은행권 민간 주체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 가능함에 주목하고, 민간의 역량을 금융포용 제고라는 개발협력성과 창출에 연계를 시도한다. 비은행권 민간 주체가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은행법, 외환거래법 등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2) 금융 서비스 제공 실행 구조의 다양성

핀테크 분야에서는 지급, 결제, 송금 등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개발된 시스템으로 마케팅 등에 보다 특화되어 고객이 실제로 시스템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 영역이 크게 2개로 분류된다. SHIFT 지원 사업의 경우, 1개 사업체가 2개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경우와 일부를 주로 다루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비즈니스

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스 모델을 이행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위의 2개 비즈니스 이행 모델은 기술, 비용, 국가별 제도 등에 따라 다양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모델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복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이슈이다.

(3) 수익창출 및 금융포용 제고 동시 고려

UNCDF SHIFT Challenge Fund는 이주노동자, 여성이라는 특정 고려사항을 금융 서비스 중 해외송금 영역과 연계해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민간 기업에 제시함으로써 해외송금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 BOP에 고려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송금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 기반 수익 창출 사업으로 단순 고려, 기획될 수 있으나, 공여기관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개발협력적 성과와 기업의 수익창출이 동시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임을 역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영역에 진입하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2〉 UNCDF SHIFT Challenge Fund 운영현황

구분	1차(2015)	2차(2016)	3차(2017)
주제	친환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저소득계층, 특히 여성 및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 개척사 실현	여성의 금융포용을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정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및 사용에 대한 장애 제거
투자 대상	은행, 비은행권 금융기관, 소액금융기관, 민간기업, 협동조합	민간기업, 금융기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주체 혹은 이러한 주체와 파트너를 맺은 법인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제공자, 소액금융기관, 해외송금업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통신사, 우편서비스 제공자)
투자 사업 대상 국가	캄보디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으로 해외송금을 송출하는 국가(태국, ASEAN 국가 및 타국가 등)
투자 주요정보	Grant 지원 총 1백만~1.2백만불 4-8건 건당 최소 10만불 피투자자는 총사업비의 30% 매칭	총 1.8백만불 10-12건 건당 10만~50만불 피투자자는 총사업비의 30~50% 매칭	건당 10만~30만불 피투자자는 총사업비의 50% 매칭

출처: 현지조사 자료

다) 사례 1: Valyou의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바일지갑서비스

동 사례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Valyou’라는 모바일지갑(mobile walle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주노동 소득을 미얀마로 송금하는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95,000불 중 Valyou가 38%(USD 300,000)를 매칭펀드로 투입하고 나머지 695,000불을 UNCDF에 지원 요청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파트너는 Digital Money Myanmar(Wave Money)로서 Valyou(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 기업)의 모회사이며, First Myanmar Investment(FMI, 미얀마 현지 벤처캐피탈), Yoma Bank(미얀마 현지 은행), Telenor(노르웨이 통신사)의 합작투자사이다.

Valyou의 비즈니스 모델은 송금액 수취인이 미얀마에서 Wave Money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통해서 송금액을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인출 혹은 디지털 지급/결제하고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는 휴대전화 기반 국제해외송금, 국내 개인 간 이체, 휴대전화 선불식 충전, 공공요금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Valyou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Valyou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해외 송금하여 미얀마 내 파트너 Wave Money로 수취인들이 현금 혹은 모바일머니로 인출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서 디지털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여성 송금인 및 수취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Valyou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머니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금서비스 인허가를 취득한 2016년부터 관련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행 중에 있으며, Valyou의 말레이시아 거주 미얀마 고객들의 해외송금액이 미얀마의 Wave Money 서비스로 연계됨에 있어, Valyou와 Wave Money는 세계 10위권 노르웨이 통신기업 Telenor의 자회사 및 합작회사들로 국경 간 서비스 상호호환성에 기술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라) 사례 2: Wave Money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문해력 제고 사업

미얀마의 Wave Money는 UNCDF SHIFT Challenge Fund 2차 투자에서 USD 295,000 투자를 받아(Wave Money 자체 USD 295,000 투입), 미얀마 여성 3만 명의 모바일 머니 계좌 사용, 여성 26만 명 대상 애플리케이션 활용 금융 문해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7-2018년 2년 간 비즈니스 수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에 UNCDF와 Digital Money Myanmar는 UNDP와 호주 외교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필요한 투자 금액 중 대부분은 UNCDF의 ‘미얀마의 금융 접근성 확장(Expanding Financial Access Myanmar)’에 의해 지원받고, 잔여 금액을 호주 외교부가 자금 지원한 SHIFT Challenge Fund에 의해 지원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요파트너 구성사 중 Telnor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동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해당 2개국과 타 송금국가들에 적용 가능함으로써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와 같이 호주 외교부는 UNCDF와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통해 금융 포용 내 디지털금융서비스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 지원 사업은 디지털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융 문해력에 관련된 것으로 금융 관련 개념 및 앱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웨이브머니(Wave Money)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Wave Money는 미얀마 민간은행인 Yoma Bank와 노르웨이 통신업체인 Telenor가 미얀마에서 합작으로 출시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이다. 웨이브머니는 미얀마 전역에 4,000개 이상의 가맹점(Wave Shop)을 통해 미얀마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이브머니 가맹점은 주로 환전소, 식료품 잡화점, 모바일상점 등이 고유 비즈니스와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계좌 내 예금, 출금 및 송금 서비스를 대행한다. 가맹점을 원하는 상점은 웨이브머니에 가맹점 신청 후 Agent ID와 Certificate No를 부여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웨이브머니는 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용’과 ‘가맹점용’ 2가지로 개발되었다.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은 현금 거래 뿐만 아니라 휴대폰 Pay as you go 충전,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Find Wave Shop)를 제공하며, 향후 상수도세 및 전기세 납부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에 있다. 반면, 가맹점용 어플리케이션은 고객 등록(Register Customer), 현금 예금(Cash in), 현금 지급(Cash out), 현금 수취(Receive Money), 타 가맹점 대상 현금 송금(Send money - Wave shop transfer), 타 웨이브머니계좌 현금 송금(Send Money-Wave account)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웨이브머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통해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웨이브머니 계좌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하며, 웨이브머니계좌를 가진 사람이 이체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갈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를 실시할

수 있고, 웨이브머니 계좌 간의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 또한, 가맹점에 가서 직접 현금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계좌 잔액을 늘리거나, 반대로 출금을 통해 잔액을 줄일 수 있다.

송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웨이브머니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금 인출 시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텔레노르 가입자의 경우 송금액과 수령액은 하루 최대 20만짖(약 16만원)까지 가능하며, 비가입자는 5만짖(약 4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표 13〉 계좌 보유자의 송금 수수료

금액(Kyat)	지불액(Kyat)	
	계좌 → 가맹점	현금 인출
1 - 25,000	700	700
25,001 - 50,000	900	700
50,001 - 100,000	1,400	1,200
100,001 - 150,000	1,800	1,600
150,001 - 200,000	2,300	2,000

* 웨이브머니 계좌 간 이체는 무료

출처: 웨이브머니 홈페이지

반대로 웨이브머니 계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활용하여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한 가맹점에서 타 가맹점으로 이체거래를 실시할 경우, 보내는 사람의 휴대폰번호, 미얀마 주민등록번호(National Registration Card, NRC),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 NRC가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돈을 받는 사람에게 거래번호(Transaction ID)가 문자로 수신되며, 동 거래번호와 보내는 사람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웨이브머니 가맹점에서 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가맹점에서 웨이브머니 계좌로 이체 거래를 실시할 경우, 보내는 사람의 휴대폰번호, NRC(주민등록번호)와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맹점을 활용할 경우 거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 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웨이브머니 가맹점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송금액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웨이브머니 가맹점간 송금하는 경우와 웨이브머니 가맹점에서 계좌 이체를 이용할 때 소액 차이가 있다. 송금액과 수령액은 하루 최대 20만짖(약 16만원)까지 가능하다.

〈표 14〉 가맹점을 통한 송금 수수료

송금액(Kyat)	지불액(Kyat)	
	가맹점 → 가맹점	가맹점 → 계좌
1 - 10,000	400	400
10,000 - 25,000	700	700
25,001 - 50,000	1,000	900
50,001 - 100,000	1,500	1,400
100,001 - 150,000	2,000	1,800
150,001 - 200,000	2,500	2,300

출처: 웨이브머니 홈페이지

〈박스 5〉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활용 사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활용 사례: 릭사 운전사 Kway Min의 이야기

만달레이에 거주하는 28세 릭사 운전사인 Kyaw Min은 아내와 두 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의무적으로 매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20,000껏를 송금하고 있으며, 과거 부모님 거주지역으로 향하는 오전 버스편에 돈을 실어 보내곤 했다. 부모님이 돈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다음날 아침 혹은 저녁에 픽업이 가능했다. 그는 매월 자신이 보낸 돈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를 염려해야 했다. 그러나, Kyaw Min은 최소 예금 예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은행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만달레이 집 근처에 위치한 웨이브머니 가맹점 혹은 그의 휴대폰을 활용해 부모님께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며, 부모님 역시 거주 지역 근처 가맹점에 방문하여 송금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웨이브머니 홈페이지

또한 웨이브머니는 가맹점 관리요원(Channel Sales Executive; CHE)을 고용하여 1명 당 20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CHE의 역할은 1일 2회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점이 웨이브머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싶거나 반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계좌 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현금과 계좌 잔액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웨이브머니 가맹점의 확장은 가맹점 관리요원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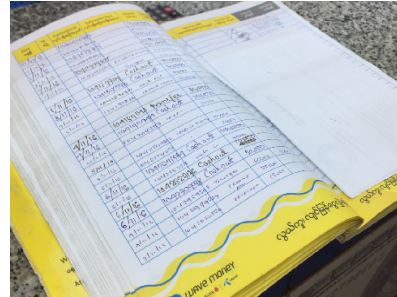
웨이브머니는 향후 웨이브머니 계좌를 요마은행(Yoma Bank)뿐만 아니라 미얀마 타 은행 계좌와도 연동하여 웨이브머니 계좌를 통해 타 은행과의 모바일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웨이브머니는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출시 캠페인 기간 동안 웨이브머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참여와 교육을 위해 28개 소도시와 대도시를 대상으로 Yellow Wave 로드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고객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웨이브머니는 Facebook과 같은 고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4/7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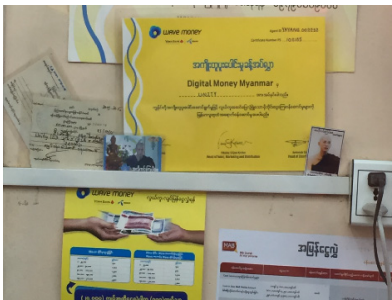
〈그림 5〉 웨이브머니 현지조사



Wave Money 가맹점 (식품잡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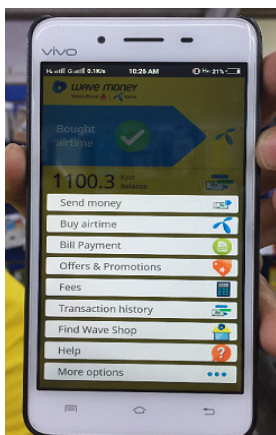
Wave Money 거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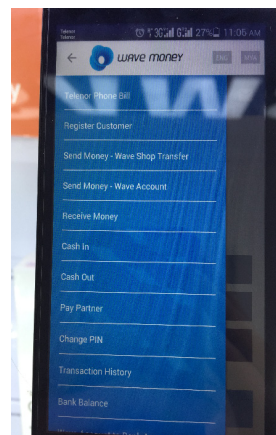
Wave Money 가맹점 등록증



Wave Money 가맹점 (모바일샵)



Wave Money 어플리케이션 (고객용)



Wave Money 어플리케이션 (가맹주용)

3. 미얀마 금융 포용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

첫째, 미얀마의 대표적 다자기금으로서 LIFT는 소농 및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액 대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미얀마에서 농업의 종사하는 인구는 70% 이상이며,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0%)을 감안할 때(김성규, 2013), 미얀마에서 농업은 핵심적 지원 분야이다. LIFT 내 금융 포용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금융 포용 사업의 핵심은 금융 포용의 확장성을 위한 소액금융기관 지원 및 역량강화와 소농 고객의 세분화를 통한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들 수 있었다.

KOICA 역시 국별 사업 중 2008~2010년에 실시한 ‘미얀마 흘레구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200만 불)’에서 이미 7만 불의 규모로 소액금융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성규(2013)에 따르면, 운영 수익 측면에서 해당 소액대출사업은 원만하게 운영되었으나, 반면 손실에 대한 우려로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자금이 필요한 소농들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액대출 운영사무소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역량부족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상품의 접근성 제약과 관리 기관의 역량 부족은 위에 LIFT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정확히 반영하는 요소로서 향후 소액금융관련 사업 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의 특징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품을 기획하고, 제도권 내에 소액금융기관을 활용하되 기관의 역량까지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미얀마 내에는 우리나라 금융 기관 중 9개 기관이 소액금융기관으로 진출해 있으며, 미얀마 소액금융분야는 소액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소액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액금융 사업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얀마 농촌공동체사업 내에 금융 포용 요소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액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얀마 내 전통적 금융기관인 은행, 비전통적 금융기관인 통신사가 결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업이 확장 단계에 있었으며, 국제기구와 공여기관 역시 이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문해력 교육이나 송금 서비스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미얀마의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태국, 한국과 같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이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고려할 때,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모바일 금융 및 송금 서비스 사업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포용에 전문성을 지닌 UNCDF의 경우 정책 자문, 지역 금융기관 자금 및 기술 지원 및 민간과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민간금융서비스제공자 등의 현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

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로부터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방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표 15>는 미얀마에서 조사한 다양한 금융 포용 사업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 금융 포용 사업 분석은 미얀마 내 금융 포용 사업에 대한 시사점뿐만 아니라 KOICA 전반의 금융 포용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아래 표에서 언급한 KOICA에 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KOICA 현재 금융 포용 관련 사업 분석하고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15> 미얀마 금융 포용 사례 분석

	LIFT	UNCDF Challenge Fund		Wave Money
사업유형	농촌개발 사업 내 금융 포용 지원	모바일 송금서비스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모바일 금융 서비스
서비스제공자	소액금융기관	Volyou (송금앱)	Wavemoney (모바일 앱)	Wavemoney (모바일앱)
상품 및 서비스	소액대출 및 소액금융기관 지원	송금	금융 문해 교육	입출금, 이체 및 지급 결제(계획)
고객	소농 (최빈곤층, 홍수 피해민, 상업적 소농, 소규모 기업 등)	싱가폴/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이주노동자	웨이브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성	미얀마 스마트폰 사용자 및 가맹점 근처 거주민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참여여부	영국, 유럽연합, 호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 자금 지원	UNCDF의 자금 지원 (695,000불)	호주외교부 자금지원 (295,00불)	직접적 참여 없으나, UNCDF, 호주 외교부와 웨이브머니 모바일앱 문해교육 실시
주요 특징	소농의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상품 개발, 소액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임팩트의 확장화 모색	디지털금융서비스 중 국가 간 송금서비스를 지원하며, 주요 고객은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이주노동자로서 Volyou는 싱가포르기업임.	민간기업의 모바일금융 앱 활용을 위한 금융 문해 교육으로 호주 외교부가 참여함.	모바일금융앱 서비스로서 상품의 범위를 입출금, 이체에서 세금지급결제로 확장하고자 함.
KOICA 사업에 주는 시사점	농촌공동체 사업 내 소액 금융요소 도입 시 1) 고객 세분화를 통한 상품 개발; 2) 제도권 내 소액금융기관 파트너 협력이 중요함.	한국 내 이주노동자비율이 높은 국가 간 송금 서비스사업 모델 발굴 가능, 국내 핀테크기업과의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기획 가능	국제기구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 문해 교육 사업 추진 가능. 혹은 UNCDF 내 KOICA 맞춤형 투자 window 설립 추진 가능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모델 개발 시 모바일금융서비스 요소 참고 가능

출처: 저자작성

제4장 KOICA 사업 도입을 위한 시사점

1. KOICA 금융 포용 분야 사업 현황

KOICA의 중점 사업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범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포용은 현재 KOICA의 중점 사업 분야 혹은 중점 분야 내 세부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 2장 금융포용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은 SDGs 중 목표1(빈곤퇴치), 목표2(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촉진), 목표4(교육의 질 제고), 목표5(양성평등 강화), 목표10(국경내 및 국경간 불평등 개선)이 금융포용 분야가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KOICA 중점분야 사업 중에서 금융 포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어떤 중점 분야 사업 내에 금융 포용 요소가 주로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금융 포용 분야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표 16〉 KOICA 중점분야

KOICA 중점분야	
분야	세부영역 예시
교육	초·중·고등 교육, 직업교육
보건의료	성생식, 모자보건, 식수, 위생, 감염병, 소외열대질환
공공행정	정치, 경제, 행정 관련 절차 및 제도
농림수산	농업, 수산업, 가축업,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교통, 수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도시개발, 경제기반시설
범분야	환경, 여성, ICT, 인권

출처: 저자작성

금융포용이 연계되는 SDGs 목표는 KOICA 중점분야 중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범분야와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금융포용 개념이 다루어 질 수 있는 KOICA의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범분야의 최근 약 8년 간 금융포용 개념의 적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범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금융포용 요소가 다루어진 16개 사업이 파악되었다.

〈표 17〉 KOICA 금융포용 요소 포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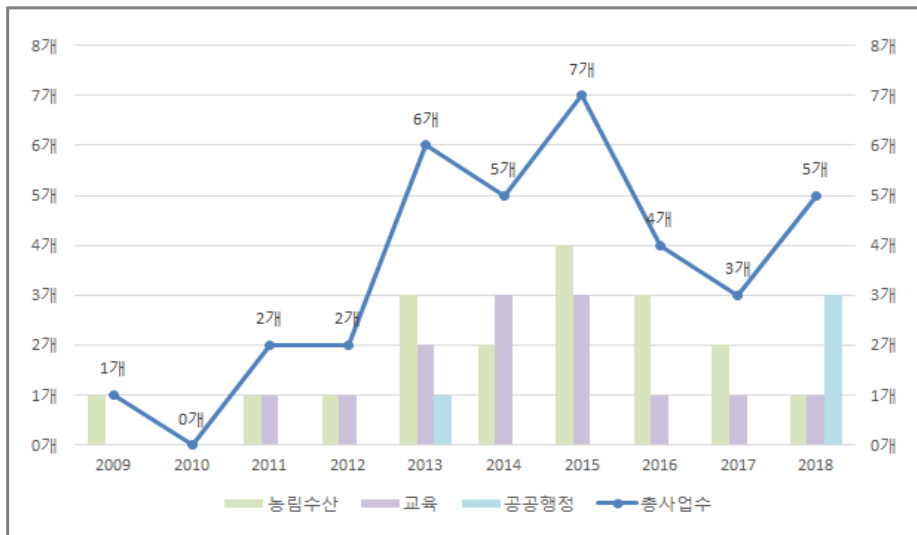
사업유형	사업명	분야	금융포용 요소	사업기간	사업비
국별 사업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2013-2016	500만불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2014-2018	1,250만불
	미얀마 흘레구지역 농촌개발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2008-2010	200만불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지원사업	공공 행정	증권시장 법령, 제도, IT분야 컨설팅 및 IT 인프라 개선	2014-2017	250만불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	공공 행정	은행 간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15-2018	800만불
시민 사회 협력 사업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 개발 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가축은행)	2009	1만불
	라오스 병아리 은행과 양계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병아리은행)	2011	1만불
	부르키나파소의 극빈 농촌 여성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퇴치 사업	교육	소액금융	2011-2015	7.2만불
	르완다 나루바카 빈민지역 자립지원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가축은행, 소액대출, 문해교육)	2012-2013	2.7만불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껍응이우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토대 구축 지원사업	공공 행정	소액금융	2013	5만불
	베트남 빈롱시 지역 빈곤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2013	6.5만불
	미얀마 이주민 빈민지역 소득 증대 및 기초교육 지원 사업	교육	소액금융 (싸이카대출)	2013-2015	2.2만불
	르완다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농림 수산	소액금융 (염소/암소은행)	2015-2017	4.2만불
	탄자니아 여성 역량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대출사업	농림 수산 (젠더)	소액금융	2015	7만불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에티오피아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	교육	금융교육	2014-2019	2,000만불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 (CHDB) 디지털뱅크 구축 및 주택예금 보급확대를 통한 미얀마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	공공 행정	은행 간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금융교육	2018-2019	170만불

출처: 주성수(2016) 참고 재구성

또한, 이들 사업의 사업 유형(국별 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다. 위 <표 17>은 KOICA 사업 중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사업 유형별 및 KOICA 중점분야로 표시하였다.

KOICA에서는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였으며, 소규모의 시민사회협력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 사업에서 금융포용 요소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국별 사업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에서도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되는 사업들이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 조사 대상 금융포용 요소 포함 KOICA 사업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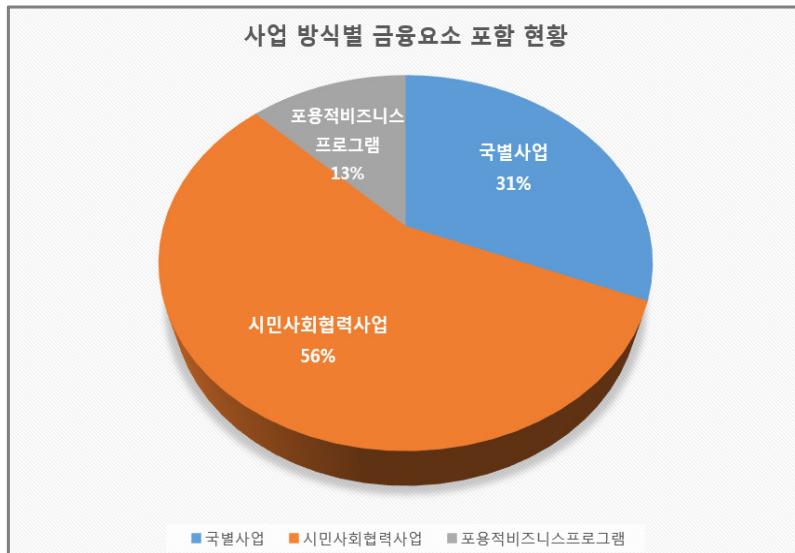
* 연도별로 신규 및 계속 사업 누적 집계

출처: 저자 작성

사업 유형 및 중점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 포용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수행된 시기는 2013~2015년으로 이 시기에 사업들을 보통 농촌 및 지역 개발사업 내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며, 국별 사업과 시민사회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로 갈수록 소액대출 외에도 금융 포용 사업의 형태는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직업훈련교육 분야 사업 내 교육으로서의 금융포용이 다루어진 바 있으며, 2018년에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한국 시중은행이 금융포용 사업을 제안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중점 분야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최근

2년 간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된 농림수산물 교육 분야 사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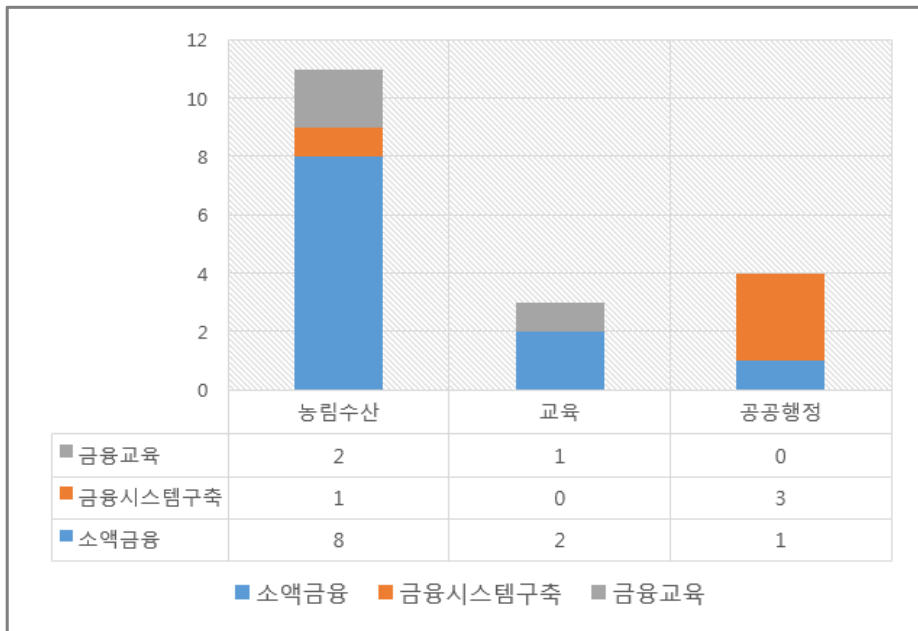
〈그림 7〉 KOICA 사업방식별 금융포용 요소 포함 현황



출처: 저자작성

KOICA 사업방식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면(그림 7 참조),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된 사업은 시민사회협력사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행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 소액대출이 금융포용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국별사업에서 금융포용 요소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국별사업은 수원국 정부 금융 관련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금융 관련 기반 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대한 역량강화를 금융포용과 연계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협력사업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훈련교육 사업에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형태로 금융포용 요소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고, 기업이 수원국 공공 금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국 저소득층 인구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활용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획된 사업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8〉 KOICA 분야별 금융포용 요소 분류 현황



출처: 저자작성

두 번째로,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 분야에서 금융포용 요소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8 참조). 주로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 소액금융 특히 농민 대상 소액대출이 사업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 지역 주민 대상 금융체계 기반 구축이 농림수산 사업에서 다루어지는 사례도 파악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민 대상 소액금융에 대한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업에서 금융 문해력 교육이 다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금융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강화를 다루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2016-17년 간 사업이 발굴되어 2018년에 착수 예정인 사업들이 해당한다. 사업 대상 마을의 비즈니스 토대 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소액금융 체계 기반 마련을 지원한 사업도 공공행정 분야 사업 사례로 파악되었다.

2. KOICA 금융포용 관련 사업 현황의 특징

본 연구는 KOICA 중점분야 중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서 금융포용이 연계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이 농촌지역개발 사업이었고, 사업의 일부가 소액대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소액대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설립되

어 있던 현지 소액금융기관, 협동조합 혹은 마을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운영역량 강화와 함께 사업비로 소액대출 자본금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기존 소액대출 기금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업 활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소액금융기관과 협동조합과 달리 비금융조직인 마을자치위원회와 협력해 소액대출을 이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가축은행 형식으로 가축 구매 자금을 지원금 형식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분야에서 금융포용이 다루어진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농촌지역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 특히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소액대출을 경제활동에 연계되게 하여 소득이 증대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구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비가 소액대출 기금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될 현지 주민을 교육하고, 소액대출 교육 현지 주민 담당자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 분야로 사업 분야가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분야로 분류됨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 드문 사례이긴 하나, ‘에티오피아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KIA-KOICA 그린라이트 센터(2014-2019/2,000만불)’는 자동차 정비 분야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직업훈련교육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원 졸업생이 향후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활용을 통한 소득원 관리, 창업을 위한 은행권을 통한 창업자본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금융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강화를 다루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2016-17년 간 사업이 발굴되어 2018년에 착수 예정인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지원사업은 증권시장 법령, 제도, IT분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관계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일반인 대상 증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주요 사업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업 활동의 결과물로 캄보디아 증권시장 법제 정비 및 투자자 운용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캄보디아 증권시장 상장기업 수 및 거래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증권시장 IT 인프라 개선을 통한 캄보디아 자본시장의 성장단계 진입 유도를 목표로 한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2018년에 착수 예정인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

(CHDB) 디지털뱅킹 구축 및 주택예금 보급 확대를 통한 미얀마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2018-2019/170만불)은 보다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주택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과 함께 기존 주택예금 상품을 점검 및 개량하고, 고객들의 주택예금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및 신규 고객 대상 금융교육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포용 분야의 변화 경향에 비추어 보면 KOICA의 금융 포용 관련 사업 변화 추이와 경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금융포용 분야에서 소액금융기관을 통한 소액대출은 1990년대 중후반에 금융포용의 개념이 태동함과 동시에 주로 실행되었던 사업형태이기도 하다. 이후 금융포용 분야의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저축, 보험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는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영역으로 진화 중이다. KOICA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소액대출이 사업 활동으로 포함된 농림수산 분야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금융포용 분야 경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으나, 최근 KOICA의 금융포용 관련 사업 경향을 보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이 발굴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적인 금융포용 논의의 흐름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2장 금융 포용의 개념과 최신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포용이 포함하는 바는 소액대출을 넘어 빈곤층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의미한다. 기존 KOICA 사업 중 금융 포용 요소를 가진 대부분의 사업은 소액대출 사업이나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상품을 개발하는지 또는 제도권 금융으로 빈곤층을 통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사업 성공의 척도가 다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포용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액대출과 금융 포용은 동일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며, KOICA의 금융 포용 사업의 방향성을 소액대출 사업으로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향후 금융 포용 사업은 소액 대출이 가진 한계를 넘어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 디지털 요소의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기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KOICA가 금융 포용 분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3. KOICA 금융포용 분야 전략적 도입 방안

가. 범분야로서의 금융포용 도입

1) 각 중점 분야 내 전략적 도입 노력

해외 원조기관, 재단 및 국제기구들도 금융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농업, 교육, 에너지, 성평등, 이주, 인도주의 지원, 공공행정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를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는 SDGs 세부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는 소작농 대상 저축, 소액대출, 유통결제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한 생계 수준 개선, 농민 대상 경작보험 제공을 통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회복력 제고와 같은 사업들이 금융포용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주와 관련해서는 해외/도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모바일 기반 해외송금/국내이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 접근성, 근로소득 보전, 금융 경제활동 양성 제고와 같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들도 여타 원조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농림수산,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 산발적으로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의 성과 수준에서 금융포용 관련성과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KOICA 중점분야 중 금융포용과 연계되는 SDGs 목표가 중첩되는 분야와의 접목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 KOICA는 초기에는 범분야적 차원에서의 중점 분야 사업 내에 금융포용 요소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포용 점차 주류화하는 노력까지도 기울여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8 참고).

무엇보다도 KOICA는 현재 범분야 분류에 금융포용을 세부영역으로 포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포용이 범분야의 세부영역으로 포함되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육 등 KOICA의 중점분야에 금융포용의 개념이 접용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KOICA 내부적으로도 금융포용은 아직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간략한 책자 형태의 실무자료 발간, 국내외 외부 금융포용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식, 경험 및 성과 공유 계기 마련을 통해 전사적으로 금융포용에 대한 개념 이해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전략 담당 부서는 현재의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을 보완하는 과정 혹은 차기 전략 수립 단계에서 금융포용을 범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금융포용을 주류화하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기울여 볼 수 있다.

〈표 18〉 SDGs 달성을 위한 KOICA 금융포용 도입 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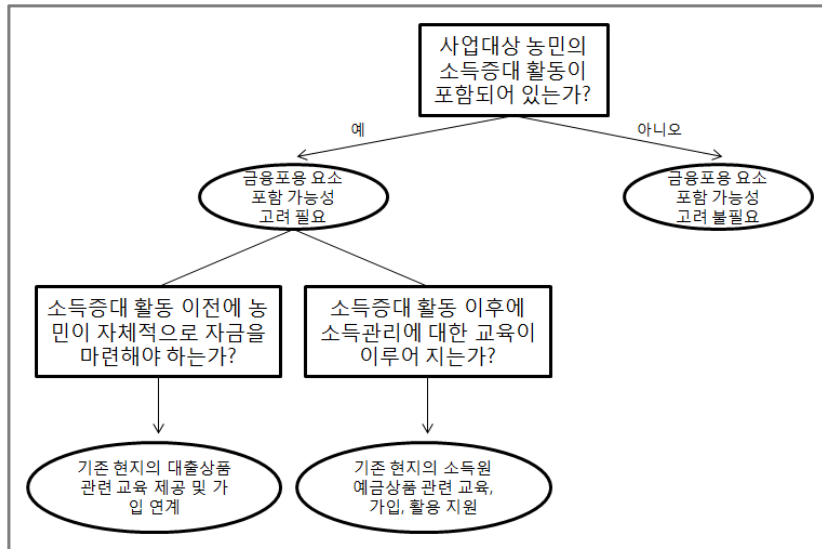
SDGs 목표	세부 지표	예시	지원분야
목표1. 빈곤	1.4. 모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 남성과 여성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	은행 계좌 혹은 모바일을 소유하지 않은 빈곤층에게 지역 대리점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도시개발, 농촌개발 등
목표2. 식량	2.3 소규모 식량 생산자, 가족농가, 유목민, 어부들 대상 안전하고 평등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소농 및 어부 대상의 금융 서비스 제공	농림수산
목표3. 보건	3.8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무적 위험 예방	의료보험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보건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8.3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초소형, 중소 규모 기업의 공식화(formalization) 및 성장 8.10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도국 자체 금융기관 역량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분석에 기반한 금융접근성 강화, 개도국 금융서비스제공자(Financial Service Provider)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e.g. Microfinance Gateway)	공공행정/교육
목표10. 국가 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10.c 이주노동자 본국송금 비용을 3% 이하로 감축 및 5% 이상 비용 폐지	송금수수료를 낮추는 모바일송금 앱 개발	이주

출처: 저자작성

2) 사업 기획 및 운영 측면에서의 도입 노력

사업의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는 신규 형성되는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포용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금융포용을 범분야적 측면에서 도입해 볼 수 있다. <그림 9>의 예시처럼 농림수산 분야의 농촌종합개발 사업에서 농민의 소득증대 활동이 포함되었다면, 단순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역량강화, 종자 및 농기계 지원으로만 사업을 구성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다루는 소득증대 활동 전후로 사업대상 농민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증대 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 활동에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9〉 금융포용 요소 포함 가능성 여부 스크리닝 예시



출처 : 저자 작성

〈표 19〉 농업분야 고객 세분화 제시 (안)

상업적 소농: 잘 연결된 가치사슬 내 소농	주로 상업적 소농: 느슨한 가치사슬 내 소농	비상업적 소농: 영세농
• 주요 소득 원천은 고부가가치작물 혹은 주곡작물인 경향이 있음. • 농업에 있어 보다 비즈니스에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함. • 구매자(buyer)가 제공하는 양질의 종자, 농기자재, 농업 및 날씨 정보, 자원, 안정된 시장과 가격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함. • 신뢰성 있고 양질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계약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함. • 매우 조직화 되어 있는 가치사슬에 속해 있으며 가치사슬 행위자 간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	• 혼합작물은 일반적으로 주곡작물에 초점이 있으나 고부가가치 작물을 포함하기도 함 • 빈곤층이나 영세농보다는 빈곤의 정도가 나음. • 농기자재, 금융 서비스, 날씨/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음. • 저품질 종자와 전통적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비공식적 지역 시장에서 초과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음. • 자산 및 소득 원천을 다양화할 기회를 찾고자 함.	• 주곡작물에 집중하며, 소규모가 축포함 • 농업을 전략적 비즈니스 기회 혹은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위해 활용, 일 년간 식량 부족 기간을 견뎌내야 함. • 소농 일반적으로 식품 구매자인 동시에 노동 공급자임. (농업생산 능력에 제한을 주게 됨) • 소량의 농기자재 및 제품을 사용함 •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이 해당 가구에 의해 소비됨.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초과 생산물은 비공식 지역 시장에서 판매 잘 구축된 가치사슬에 어떨만한 형태라도 연계되지 못함.
금융 포용 지원 방안: 다른 고객보다 다양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요구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 포용 지원 방안: 일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접근에는 제약이 존재함.	금융 포용 지원 방안: 대부분이 기본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공식이거나 기초 금융 상품으로 제한됨 (지역 저축 및 대출 그룹)

출처: USAID, Guide to the Use of Digital Financial Services in Agriculture

〈표 20〉 가치사슬금융의 디지털 접근방식 (안)

활용 사례	상품 유형	주요 문제	디지털의 역할
거래 효율성 증진	대규모 디지털 결제 Digital Bulk Payments	(수확 후) 구매자들은 소농에게 현금을 지급 시 높은 비용과 위험에 직면함.	구매자들이 농촌 지역까지 현금을 운송해서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 감소
	디지털 대출 지급 및 상환 Digital Loan Disbursements and Repayments	(생산 및 수확 후) 지리적으 로 넓게 퍼져 있는 소농은 높은 금융 서비스 비용 지불	지점 설립 필요성 및 대출 담당자가 대출금을 지급 및 상환할 시 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필요성 감소
금융 서비스 공급장애 극복	투입재를 위한 디지털 저축 Digital Savings for Inputs	(생산) 소농은 고품질 투입재를 위한 재원이 없음.	저축 수거를 위해 지점을 설립하거나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필요 감소, 유연한 지급 가능, 투입자를 위한 수요 통합
	디지털 농업 보험 Digital Agricultural Insurance	(생산) 작물 손실 위험은 소농의 생산성 투자를 저해	디지털 보험료 지급, 손실의 자동 모니터링 및 모바일 지급으로 결제, 보험 제공 비용 감소
	디지털 신용 Digital Credit	(생산) 소농은 고품질 투입재 혹은 운전자본을 위한 재원이 없음.	지점 설립 필요성 및 대출 담당자가 대출금을 지급 및 상환할 시 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필요성 감소, 신용 내역이 없는 소농대상 대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시장 기회 향상	디지털 거래 플랫폼 Digital Trading Platforms	(수확 후) 소농은 작물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부족	구매자와 소농을 연결하여 보다 투명한 시장기회 제공, 조달 비용 감소 및 판매가 최대화를 위해 소농 생산물 취합
	디지털 인보이스 할인 Digital Invoice Discounting	(수확 후) 구매자는 소농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재함.	미수금 확보를 위한 생산 기록 데이터 활용, 물건 배달 즉시, 소농의 계좌로 지급 가능하게 함.
	디지털 창고증권 Digital Warehouse Receipts	(수확 후) 시장가격이 낮음에도 소농은 수확 즉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유동성 제약	저장된 작물의 품질 및 수량에 관한 디지털 정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저장 작물 가치의 디지털 증권

출처: CGAP, 2017

또한, 해당 사업에 금융 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수혜자를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객별로 지원해야 하는 금융 상품을 차별화하여 기획해야 한다. <표 19>는 소농을 금융 상품을 제공받는 고객으로서 세분화하고 그에 적절한 금융 포용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소농의 경우에도 비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농, 상업적 가치사슬 내에 위치한 소농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금융 포용 상품은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KOICA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수혜자가 사업 목적에 따라 어떤 성격의 소농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금융 포용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KOICA 대부분의 농업분야 관련 금융 포용 사업이 소액금융 사업이었던 반면, 농업 관련 금융 포용 사업은 소액 금융 외에도 다양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접근방식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표 20>에서는 농업 비즈니스 가치사슬 내에 있는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포용 사업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출뿐만 아니라 저축 및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디지털 요소가 접목되는 경우, 금융 접근성을 위해 지점을 설립하거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디지털 대금 결제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현금을 운반함으로써 생기는 운반 위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나. 단독 분야로서의 금융포용 도입

1) 금융포용 주요 영역의 심화

금융포용은 크게 금융 문해력, 접근성, 활용도 제고라는 3개 영역으로 나뉜다. 금융 문해력 제고는 금융에 대한 기본적 수준의 지식을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역이다. 금융접근성 제고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가입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영역이다. 금융 활용도 제고는 저소득층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와 사용을 통해 소득증대 또는 자금마련으로 연계되는 점을 제고하는 영역이다.

금융 문해력과 활용도 제고의 경우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혹은 민간의 금융 또는 비금융 주체가 국민과 고객에게 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금융포용 영역으로만 특화된 연수사업을 형성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책은행 또는 민간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여한 요소들을 접목하여 연수교육과정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접근성 제고 영역의 경우,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영역으로, 은행지점 혹은 현금지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것부터 현지 정보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은행 서비스를 도입 혹은 정착하는 사업들을 국별 협력 사업이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형성해 볼 수 있다.

2) 한국의 비교우위를 접목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금융포용 사업 개발

최근 금융포용 분야에서 여타 원조기관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디지털 기반 금융포용 제고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술 발전과 적용의 단계별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 KOICA가 금융포용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KOICA는 국내적으로도 금융포용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분야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경쟁력 있는 주체들이 금융포용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부문이 금융포용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여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KOICA와 공동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금융포용 분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도입 예시

비즈니스 주체	핀테크 해외송금사 000			
비즈니스 정의	(주체) 000는 네팔 현지은행과 협업하여 (고객) 한국에서 근무 중인 네팔 이주노동자와 본국가족들에게 (문제점) ▲불법적 송금방식에의 높은 의존도, ▲이주노동소득의 낮은 활용도, ▲귀국 이주노동자의 습득기술 및 본국송금액을 연계한 경제활동이 저조한 문제를 (핵심활동) ▲안전하고, 저렴하고, 신속한 한국→네팔 본국송금 서비스, ▲금융포용 제고 프로그램,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치제안) 송금서비스 플랫폼 기반 네팔 이주노동자 및 본국가족의 ▲해외근로소득 축적 독려, ▲네팔 현지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한 본국송금액 활용도 제고, ▲본국송금액 기반 창업희망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포용적 비즈니스 캔버스				
핵심 파트너	핵심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송금 서비스 네팔 현지은행 (Nabil, Mega 등) 네팔 중앙은행, 고용노동부, 직업기술개발연수센터	안전하고, 저렴하고, 신속한 휴대폰·인터넷 기반 한국→네팔 송금서비스	송금 서비스 해외송금액 분실사고 감소 해외송금 수수료 금액 대 별 로	(출국전-한국도착 이주노동자) 한국 도착 후 정착에 대해 정보가 가장 필요한 고객군으로 금융포용 교육의 주요 대상자 (한국체류 이주노동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고객군으로 본 사업은 이들이 합법적 송금방식을 사용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자산관리 역량을 제고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	이주노동 사이클별로 고객군을 구분하여 고객의 Pain points 심층조사 수행하여 고객의 Needs 충족 가능한 핵심활동 실행계획 수립
금융포용 교육 (네팔) 고용노동부, 중앙은행, 직업기술개발연수센터, 현지은행, 귀국이주노동자 커뮤니티	이주노동 사이클 (출국전/한국도착-한국체류-귀국준비- 귀국후) 맞춤형 송금서비스 연계 금융포용제고 교육	50~90% 절감 해외근로소득 보전 해외송금 빈도 증가 해외송		

니티, KOICA 네팔사무소 (한국) 산업인력공단, 국민연금공단, 주한네팔대사관, KOICA 본부	제공	금 시간 단축	(귀국준비-귀국후 이주노동자) 일정 규모 이상 축적된 본국송금액을 활용한 경제활동 계획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고객군으로 이들 중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상자들에게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 (본국가족) 본국송금액을 수취하는 고객군으로 본국송금액이 일회성 소비·지출이 아닌 적절한 금융 상품·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가능한 방식에 대한 교육 제공의 주요 대상
	본국송금액 활용 창업 희망 귀국이주노동자·본국가족 대상 창업보육 지원	금융포용 교육 해외송금 양성화 일반 예금 등 기타 금융상품 이용 증가 주거 레계좌 사용 빈도 증가 신용거래 제고	
	핵심자원	창업보육 지원 우수참가자의 창업 실적의 수익 달성 기반 조성 외부투자 유치 연계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기 개발되어 상용화된 000의 송금서비스 모델 000의 전략, 개발, 마케팅 인력		
	금융포용 연구 경험 보유 전문 인력		
창업보육 지원 현지기반 인큐베이팅 전문기관 (후보기관 : OpenIDEO, UNDP, Microsoft Innovation Center 등) 네팔 고용노동부 KOICA 네팔사무소 및 본부 주한네팔대사관 한국 산업인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 내 네팔이주노동자 커뮤니티	창업보육 전문기관의 컨설팅 경험, 전문인력, 업종별 네트워크		
	KOICA의 네팔 현지 공공·민간 영역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구축·확대 지원 KOICA의 개발협력성과 관리 전문성		
	유통채널		
송금 서비스 000는 업무협약을 맺은 네팔 현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사전 예치 000는 한국에서 네팔 이주노동자 고객의 해외송금수요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액은 송금서비스전용 계좌로 접수 000는 네팔 업무협약은행에 고객의 송금신청 데이터를 전달 네팔 업무협약 은행은 수취인에게 송금액을 전달 및 000에 수취결과 회신 000는 수취결과 회신 접수정보를 고객에게 송금신청 기준 24시간 이내에 전달			
금융포용 교육 및 창업지원 온라인 기반 송금서비스에 기본적으로 금융포용 교육과정 탑재 이주노동 사이클별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출국전) 네팔 고용노동부, 중앙은행, 산업인력공단 네팔사무소와 협력해 네팔 직업기술개발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출국 이주노동 대상 사전교육과정에 금융포용 커리큘럼을 제공 및 운영 지원 ▶ (한국도착) 한국에 입국 후 산업인력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한국체류교육에			

	금융포용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제공 ▶(귀국전) 한국 산업인력공단, 국민연금 및 주한네팔대사관과 협업하여 귀국전 이주노동자 대상 금융포용 교육과정 제공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귀국후) 산업인력공단 네팔사무소, 네팔 직업기술개발연수센터와 주로 협력하고 KOICA 네팔사무소의 지원과 함께 귀국후 이주노동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본국가측) ooo의 온라인 송금서비스 플랫폼에 본국가측이 접속하여 금융포용 교육 과정을 접하게 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비용구조	수익원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업무) 및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업무) 준수를 위한 테스트 비용 : 건당 300원 본인계좌주 확인 비용 : 건당 240원 환전 수수료 : (USD/KRW) 송금액의 0.03%, (USD/현지 통화) 송금액의 0.5% (매매기준율 적용) 기타 : 전체 송금액의 0.1% ※ 1건 100만원 송금 시 비용구조 예시 - 매출원가 : KYC/AML 테스트 비용 240원 + 본인계좌 확인 비용 300원 + 환전수수료 5,300원 + 기타 1,000원 = 약 6,480원 (송금액의 약 0.68%)	송금액 기준 구가별 고정 수수료 또는 수수료를 적용 한국→필리핀 송금서비스 예시 ▶ 60만원 미만 : 5% ▶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30,000원 ▶ 100~300만원 : 3%
사회·환경적 비용	사회·환경적 혜택
은행이 독점해 온 기존 해외송금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사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해외송금시장의 고비용 및 비효율성이 개선되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 전망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송금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들이 발생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	기존 해외송금시장의 생태계에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경쟁구도가 이루어지고, 가격 및 서비스품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져 보다 나은 합법적 서비스들이 생겨남에 따라 고객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정부 측면에서는 송금방식의 양성화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 사회적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송금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

다. 금융포용 분야 도입 시 주의사항

1) 금융포용 활동 이행의 적절성 여부 점검

신규 혹은 계속 사업에서 범분야적 금융포용 관련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해당 요소가 현지 법 및 제도에 준하여 이행되고 있는지, 금융포용의 요소로 소액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가 사업 내에서 운영됨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책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22〉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트 예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종류	확인 필요사항	
	공통	개별
예금	• 해당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이 해당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수혜자)의 수요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디지털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금융 접근성 보다 높일 수 있는가?	• 해당국 관련법에 근거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가?
대출		• 해당국 관련법에 근거한 이자율을 적용하였는가?
보험		• 해당국 관련법에 근거한 보험료가 책정되었는가?
디지털 은행 서비스		• 디지털 은행 시스템에 고객신용정보 보안 장치가 구현되었는가?
해외송금		• 국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고객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준용하고 있는가?

출처 : 저자작성

앞서 살펴본 금융포용 요소가 포함된 사업 중에는 현지 은행, 소액금융기관 혹은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공식 금융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비공식 금융 조직인 마을자치위원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가축은행 혹은 소액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반면 손실에 대한 우려로 사업 기획 매트릭스(Project Design Matrix)에 대출 상황율을 산출물로 설정함으로써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점들을 해소하고, 위험요인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KOICA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 및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 금융포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적용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수 확인 필요항목을 작성하고, 해당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을 실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2) 금융포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노력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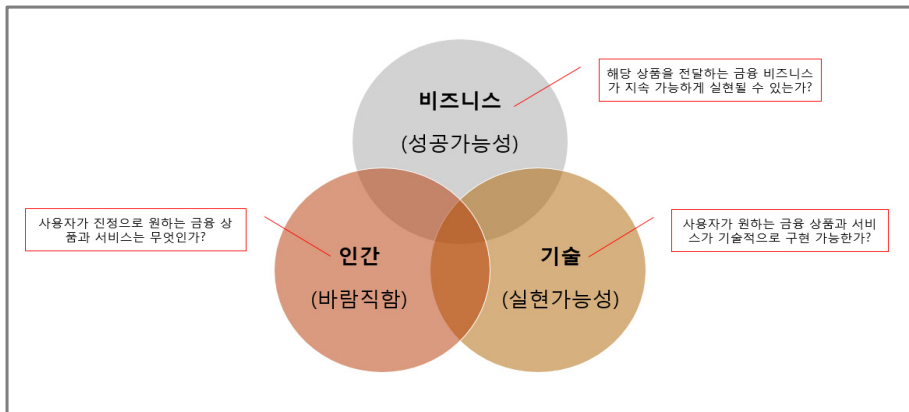
금융포용 분야 사업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금융포용 분야의 여러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조사 과정에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자이자 고객인 저소득층과의 밀접한 접촉이 관건이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과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유인책을 제공하였을 때 이들의 행동변화 (behavioral change)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업 활동으로 기획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금융포용 사업 기획과 실행은 미시적으로는 이들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과 활용도

가 높아짐으로써 개인 경제생활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거시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금융 부문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점차 금융 부문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KOICA 여러 사업 분야에 금융소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이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별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포용 분야를 이미 범분야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타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재단 등의 사업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수혜자가 아닌 고객으로 정의하고, 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고객의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파악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유인책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 적용되고, 시행착오 과정을 용인하여 고객의 행동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포용 분야를 선도하는 CGAP과 빌게이츠재단은 금융소외계층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 중심 사업기획 방식(human-centered design thinking)’을 적용하고 있다. 동 방법론은 사용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현 가능한가,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빠른 속도의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시행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0〉 금융 포용을 위한 인간 중심 사업 기획 방식



출처 : 저자 재구성, <https://www.ideo.com/post/design-kit> 참고

KOICA는 향후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업대상자 중 금융소외계층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기획 단계에서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 활동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사업 착수 후에는 생활 방식, 행태, 성별, 연령, 지역적 특징에 따라 고객그룹의 생계 환경에 주목하여 금융포용 시장을 세분화하고 분석하여 금융포용 개선 노력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함으로써 목표한 그룹별로 최적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포용 사업을 전개함이 필요하다. 금융소외 계층 또한 최빈곤층, 소작농 가구, 난민 및 위기에 영향을 받은 대상, 여성, 비정규 노동자, 저소득 사업자, 청년, 도시이주노동자, 해외이주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고려될 수 있다.

KOICA 역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개발협력에서의 소외계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소외계층의 지원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전략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고려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금융 포용 분야는 이들 금융 소외 계층들의 포용적 발전을 담아낼 수 있는 적합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 금융 포용 분야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KOICA에서는 금융포용 분야가 아직 전략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중점 분야 사업 내 일부 요소로 포함되거나 민관협력 사업 활동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포용 분야의 성과가 사업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KOICA의 금융포용 분야에 대한 기여도는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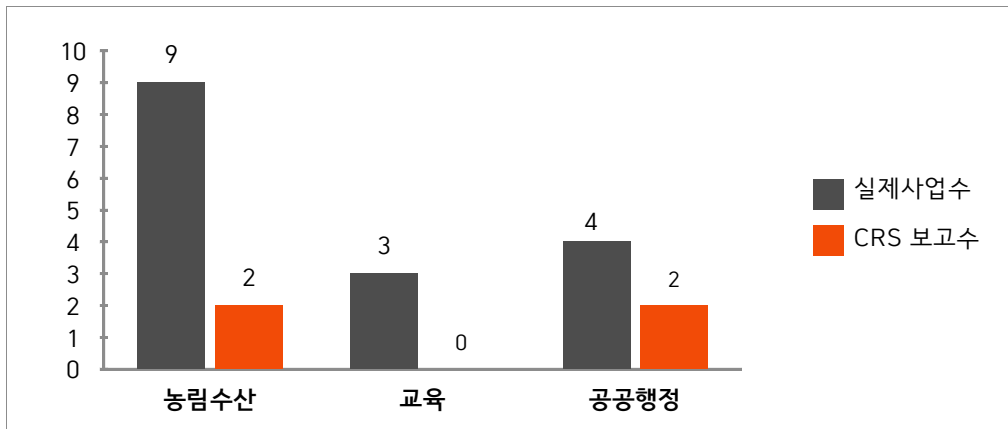
<표 23>에서 설명하듯이, 금융 포용과 관련한 OECD DAC CRS 코드 24010(금융 정책 및 행정관리), 24020(중앙금융기관), 24040(비공식/유사 금융기관)로 보고된 KOICA 사업은 총 5건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KOICA 사업 중 금융 포용 요소를 가진 사업 수는 17건이었다. 즉,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 포용 요소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업과 교육 분야 CRS 코드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므로 금융 포용 지원 실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 포용 관련 공공행정분야 사업의 경우 CRS 코드 24010과 24020에 정확히 매칭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공행정 분야의 금융 포용 사업은 보다 모니터링하기 쉽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3〉 금융 포용 관련 CRS 코드와 KOICA 사업 매칭

CRS코드	CRS명	사업명	KOICA 중점분야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지원사업('14-'17/250만불)	공공행정
24020	중앙금융기관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15-'18/800만불)	공공행정
24040	비공식/ 유사금융기관	베트남 빈롱시(Vinh Long) 지역 빈곤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사업	농림수산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15-'18/3년6개월)	기타
		탄자니아 여성 역량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대출사업 (2015-2017/601백만원)	농림수산

출처: 저자작성

〈그림 11〉 KOICA 금융포용 실제 사업 수 대비 OECD DAC 보고 수 비교



출처: 저자작성

또한 KOICA 금융 포용 사업 중 대부분이 농업 분야의 소액대출사업이거나 혹은 해당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보고서 26페이지에서 언급한 농업분야 하위 CRS 코드 31193 (농업 금융 서비스)로 보고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1개의 사업 당 1개의 CRS 목적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칙으로 인해 생겨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KOICA는 SDGs 모니터링을 위해 OECD DAC CRS 코드와 SDGs 17개 목표를 연결한 SDG 마커를 개발하고 각 CRS 코드별로 KOICA 5대 분야 중 하나의 분야를 지정하였다. 아래 표 24를 보면, 금융 포용 관련 CRS 코드는 SDGs 1번 목표 (빈곤퇴치), 8번 목표(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에 집중되어 있으며, 5번 목표(양성 평등)와 10번 목표(불평등)는 해당 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금융서비스 관련 코드는 1번 목표와 2번 목표(기아 해소와 식량안보)에 기여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금융 포용 관련 CRS 코드가 대부분의 관련 있는 SDGs 목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앞서 설명한 3번 목표 (보건), 4번 목표 (교육), 9번 목표(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은 금융 포용 요소가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금융 포용 사업의 실제 KOICA 5대 분야는 농림수산물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금융 포용 관련 CRS 코드는 공공행정 분야에 매칭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KOICA CRS 코드별 SDG 마커와 5대 분야 연계

CRS코드	CRS명	SDG 마커	KOICA 5대분야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Goal 1, Goal 8, Goal 5(해당시), Goal 10(해당시)	공공행정
24020	중앙금융기관	Goal 1, Goal 8	공공행정
24030	공식적 금융 중개	Goal 1, Goal 8	공공행정
24040	비공식/ 유사 금융기관	Goal 1, Goal 8, Goal 5(해당시), Goal 10(해당시)	공공행정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Goal 1, Goal 8, Goal 5(해당시), Goal 10(해당시)	공공행정
31193	농업금융서비스	Goal 1, Goal 2	농림수산물

출처: 저자작성

또한 사업 단위에서는 금융 포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measurable)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 가능(transferable)한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지표는 G20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이 발표한 ‘G20 금융포용 지표’와 UN SDGs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포용 관련 지표를 채택하여 사업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금융포용 사업성고가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가 동의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개념, 국제사회 논의 및 최신 동향 그리고 미얀마 내 금융 포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KOICA의 금융 포용 도입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 포용의 개념에 있어서 핵심은 금융 소외 계층(개인 및 기업)에게 제도권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의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접근성의 의미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용가능성,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다.

금융 포용의 논의는 2010년 전후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고객을 가능한 세분화하여 고객 수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또한 금융 포용과 디지털 접근 방식과의 접목이 강조되어 왔다. 금융 포용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CGAP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여러 공여기관, 국제기구, 개발은행 및 자선재단들도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논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국가인 미얀마 내 금융 포용 사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농의 생계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LIFT 내 금융 포용 사업 역시 다양한 유형의 소농을 대상으로 대출, 저축, 보험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UNCDF는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미얀마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KOICA 사업 중 금융 포용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의 농업분야 내 소액대출사업 특히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공공행정 분야의 금융 시스템 지원 사업 등 특정 있는 사업들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이 금융 포용 개념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발굴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소액대출의 인기 혹은 협력국 요청에 의한 사업 발굴인 경우였다고 보인다. KOICA 내에 여러 중점 분야, 범분야, 우선순위 되는 이슈들과 비교하였을 때 금융 포용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현재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농업, 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과의 접목이 강조되는 금융 포용 분야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KOICA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가 KOICA의 금융 포용 사업 기획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KOICA의 금융 포용 사업 발굴 및 기획 방향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 연구를 시작으로 개발협력분야 내 금융 포용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성규. 2016. “사회자본과 개도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미얀마 농촌종합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3권-1호: 86-111.
- 광성일·이주영. 2013.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형식·이순호. 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오홍식. 2016. 『저개발 국가 금융포용 수단으로서의 핀테크 활용 사례 및 시사점』. 신한 리뷰 Monthly Magazine 2015-6호: 8-11. 서울: 신한금융지주회사.
- 윤유리. 2017. 『제 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개발과 이슈 29호 2017.06.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유재원·주상영·한홍렬. 2012.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진. 2012. 『Financial inclusion 관련 주요 동향 및 각국별 사례 비교』. 월간하나금융 2012-1호: 18-27. 서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성수·남영숙·김성수. 201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16.5.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금융연구원. 2015.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소외자 포용정책 강화』. 국제금융이슈 24 권-13호: 14-15.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황규득. 2015.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외문헌〉

- Aghion, P., and P. Bolton. 1997.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 151 -72.
- Anderson, S., and J.-M. Baland. 2002. “The Economics of Roscas and Intrahousehold Resource Allocation.” The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No. 3, 963 -95.
- Ashraf, N., D. Karlan, and W. Yin. 2010. “Female Empowerment: Further Evidence from a Commitment Savings Product in the Philippines.” World Development Vol.

28, No. 3, 333 - 44.

- Ashraf, N., N. Gons, D. Karlan, and W. Yin. 2003. "A Review of Commitment Savings Product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 Banerjee, A., and A. Newman. 1994. "Poverty, Incentives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 2, 211 - 5.
- Barro, R.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407 - 43.
- Bateman, M. 2012. 'Let's Not Kid Ourselves that Financial Inclusion will Help the Poor', *Poverty Matters Blog*, 8 May, 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2/may/08/financial-inclusion-poor-microfinance (accessed 1 December 2017)
- Beck, T., A. Demirgüç-Kunt, and R. Levine. 2007.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27 - 49.
- Brune, L., X. Gine, J. Goldberg, and D. Yang. 2015. "Facilitating Savings for Agriculture: Field Experimental Evidence from Malawi." NBER Working Paper 20946.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GAP. 2014a. "Customer-Centricity for Financial Inclusion." Washington, D.C.: CGAP.
- CGAP. 2014b. "The Journey to Customer Centricity." Washington, D.C.: CGAP.
- CGAP. 2017. "Digitizing Value Chain Finance for Smallholder Farmers." Washington, D.C.: CGAP.
- GPFI. 2010. G20 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 - executive brief
- GPFI. 2013. G20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
- Chiapa, C., S. Prina, and A. Parker. 2014.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Beyond Financial Outcomes." Cleveland: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De Arcangelis, G., M. Joxhe, D. McKenzie, E. Tiongson, and D. Yang. 2015. "Directing Remittances to Education with Soft and Hard Commitments: Evidence from a Lab-in-the-Field Experiment and New Product Take-Up among Filipino Migrants in Ro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11, 197 - 208.
- Demirgüç-Kunt, A., L. Klapper, and D. Singer. 2013. "Financial Inclusion and Legal

-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416. Washington, D.C.: World Bank.
- Demircuc-Kunt, A., L. Klapper, D. Singer, and P. Oudheusden. 2015.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4: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round the World.”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255. Washington, D.C.: World Bank.
 - Dupas, P., and J. Robinson. 2009. “Savings Constraints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Kenya.” NBER Working Paper 14693.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upas, P., and J. Robinson. 2009. “Savings Constraints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Kenya.” NBER Working Paper 14693.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FAO. 2015.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Rome: FAO.
 - Frenk, J., and F. M. Knaul. 2002. “Health and the Economy: Empowerment Through Evidence. Editorial.”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 80, No. 2.
 - Galor, O., and J. Zeira.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No. 1, 35 - 52.
 - Honohan, P. 2004.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Poverty: How Close are the Link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03. Washington, D.C.: World Bank.
 - Jack, W., and T. Suri. 2014. “Risk Sharing and Transactions Costs: Evidence from Kenya’s Mobile Money Revol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1, 183 - 223.
 - Karlan, D., and J. Morduch. 2010. “Access to Finance.” I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 4703 - 84.
 - Karlan, D., R. Osei, I. Osei-Akoto, and C. Udry. 2014. “Agricultural Decisions after Relaxing Credit and Risk Constrai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2, 597 - 652.
 - Khandker, Shahidur R. 1988. *Fighting Poverty with Microcredit: Experience in Bangladesh*.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 Kirk, M., J. Steele, and L. Crow. 2011. *Connected Agriculture—The Role of Mobile*.

London: Accenture.

- Krishna, A. 2006. "Pathways Out of and Into Poverty in 36 Villages of Andhra Pradesh, India." *World Development*, Vol. 34, No. 2, 271 - 88.
- Malhotra, A., A. Kanesathasan, and P. Patel. 2012. "How Mobile Phones, Computers and the Internet Can Catalyze Women's Entrepreneurship."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Manfre, C., and C. Nordehn. 2013. "Exploring the Promi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Women Farmers in Kenya."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EAS Case Study No. 4.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Mazer, Rafe, Katharine McKee, and Alexandra Fiorillo. 2014. "Applying Behavioral Insights in Consumer Protection Policy." Focus Note. Washington, D.C.: CGAP.
- Mbiti, I., and D. N. Weil. 2011. "Mobile Banking: The Impact of M-Pesa in Kenya." NBER Working Paper 17129.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cKay, Claudia, and Yanina Ester Seltzer. 2013. "Designing Customer-Centric Branchless Banking Offerings." Brief. Washington, D.C.: CGAP, December.
- Morduch, J. 2007. "The Unbanked: Evidence from Indonesia." The Financial Access Initiative, NYU Wagner Graduate School.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 Mullainathan, Sendhil, and Eldar Shafir. 2013. "Decision making and policy in contexts of poverty." *Behavioral foundations of public policy* 281-300..
- Muralidharan, K., P. Niehaus, and S. Sukhantar. 2014. Building State Capacity: Evidence from Biometric Smartcards in India. JPAL Working Paper. Tokyo: JPAL.
- O'Neill, Donal. 1995. "Education and Income Growth: Implications for Cross-Country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6, 1289 - 301.
- Pande, R., S. Cole, A. Sivasankaran, G. Bastian, and K. Durlacher. 2012. "Does Poor People's Access to Formal Banking Services Raise Their Income?" EPPI-Centre, Social Science Research Unit,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Pannarunothai, S., and A. Mills. 1997. "The Poor Pay More: Health-Related Inequality in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4, No. 12, 1781 - 90.

- Park, C.-Y., and R. V. Mercado. 2015. "Financial Inclusion, Poverty,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Asia." Asian Development Bank Economics Working Paper 426.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Prina, S. 2013. "Banking the Poor via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Cleveland: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Weatherhead School of Management.
- Priyanka, S., K. Xu, and D. B. Evans. 2011. "Impact of Out-of-Pocket Payments for Treat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Literatur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cussion Paper 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Slama, J. 2014. "Diamond Bank Storms the Market: A BETA Way to Save." New York: Women's World Banking.
- Women's World Banking. 2012. "Microfund For Women's Caregiver Experience: Lessons from Jordan on Health Microinsurance." New York: Women's World Banking.

〈인터넷 자료〉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12. "Financial Services for the Poor," available at <https://docs.gatesfoundation.org/Documents/fsp-strategy-overview.pdf> (접속일: 2017.11.01.).
- Center for Financial Inclusion. <https://cfi-blog.org/tag/remittances> (접속일: 2017.11.01.).
- Daryl Collins, Jonathan Morduch, Stuart Rutherford, and Orlanda Ruthven. 2009. "Portfolios of the Poor: How the World's Poor Live on \$2 a Day."
- Ideas 42. 2017. "Projects," available at <http://www.ideas42.org/projects> (접속일: 2017.11.01.).
- IDEO. 2017. "Financial Health," available at https://www.ideo.org/programs/financial_health (접속일: 2017.10.05.).
- IDEO. 2017. "Five Reasons Why Financial Services Needs Design," available at <https://www.ideo.org/perspective/5-reasons-why-financial-services-needs-design> (접속일: 2017.11.01.).

- Khine Kyaw. 2017. “Wave Money enjoying ride in Myanmar,” posted on The Nation website on 14 November, 2016,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aec/30299893> (접속일: 2017.11.01.).
- Klapper. L. 2016.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Financial Inclusion.” CGAP Working Paper.
- LIFT. 2016. “The Financial Inclusion Programme,”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sites/lift-fund.org/files/uploads/Financial%20Inclusion%20programme%20one%20pager.pdf> (접속일: 2017.6.15.).
- LIFT. 2017a. “What We Do,”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what-we-do> (접속일: 2017.6.15.).
- LIFT. 2017b.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sites/lift-fund.org/files/publication/Flyer%20EN-Final%20%2824%20OCT%29.pdf> (접속일: 2017.6.15.).
- LIFT. 2017c.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sites/lift-fund.org/files/uploads/LIFT-flyer-June-2016.pdf> (접속일: 2017.6.15.).
- LIFT. 2017d. “Technical Assistance (TA) to LIFT/Cordaid Partner MFI’s,”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my/node/5936> (접속일: 2017.6.15.).
- LIFT. 2017e. “Creation of a Microfinance Institution in the Dry Zone,”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project/creation-microfinance-institution-dry-zone> (접속일: 2017.6.15.).
- LIFT. 2017f. “Myanmar Access to Financial Inclusion (MAFIN) Project,”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my/node/5912> (접속일: 2017.6.15.).
- LIFT. 2017g. “Myanmar Access to Rural Credit Through Institutional Strengthening (MARC) Project,”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project/myanmar-access-rural-credit-through-institutional-strengthening-marc-project> (접속일: 2017.6.15.).
- LIFT. 2017h. “Financial Inclusion—Moving Ahead,” available at <http://www.lift-fund.org/project/financial-inclusion%E2%80%94moving-ahead> (접속일: 2017.6.15.).
- LIFT. 2017i. “Support to Savings-led Microfinance Market Leaders to Enter Myanmar (Microlead Expansion Programme),” available at <http://www.lift-fund.org/support-to-savings-led-microfinance-market-leaders-to-enter-myanmar>

fund.org/project/support-savings-led-microfinance-market-leaders-enter-myanmar-microlead-expansion-programme (접속일: 2017.6.15.).

- LIFT. 2017j. “Flood Impact And Rehabilitation Proposal,”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project/flood-impact-and-rehabilitation-proposal> (접속일: 2017.6.15.).
- LIFT. 2017k. “YOMA Bank Agri-Business Finance Programme (AFP),” available at <https://www.lift-fund.org/my/node/5915> (접속일: 2017.6.15.).
- McKinsey & Company. 2017. “Payments and financial inclusion: An interview with Rodger Voorhies of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McKinsey on Payments 2013, available at goo.gl/NA8ht1
- Myra Valenzuela, Wameek Noor, and Nina Holle. 2017. “Juntos Finanzas: A Case Study,” posted on CGAP website on 22 October, 2015, <http://www.cgap.org/publications/juntos-finanzas-case-study> (접속일: 2017.11.01.).
- OECD. 2017. “Financial education,” available at <http://www.oecd.org/finance/financial-education/financial-education.htm> (접속일: 2017.11.01.).
- OECD. 2017.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measuringfinancialliteracy.htm> (접속일: 2017.11.01.).
- Philip Mader. 2016. “Questioning Three Fundamental Assumptions in Financial Inclusion.”
- Sujeev Shakya, Sudip Bhaju, Subrina Shrestha, Raju Tuladhar and Shayasta Tuladhar. 2016. “Nepal Financial Inclusion Country Report 2014” posted on UNCDF website on 14 July, 2016, available at http://map.uncdf.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epal_synthesis.pdf (접속일: 2017.11.15.).
- Telenor. 2017. “Wave Money launched in Myanmar,” posted on Telenor website on November, 2016, <https://www.telenor.com/wave-money-launched-in-myanmar> (접속일: 2017.11.01.).
- UNDP Nepal. 2017. “Level of financial inclusion in Nepal has improved, says new study,” posted on UNDP Nepal website on 15 July, 2016, <http://www.np.undp.org/content/nepal/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6/07/15/level-of-financial-inclusion-in-nepal-has-improved-says-new-study.html> (접속일: 2017.11.01.).
- USAID. 2017. “Eight Years of Progress on Financial Inclusion,” available at <https://www.usaid.gov/news-information/fact-sheets/eight-years-progress-finan>

cial-inclusion (접속일: 2017.11.01.).

- USAID. 2017. “Financial Inclusion Means More Than Having A Bank Account,” available at <https://www.usaid.gov/news-information/videos/financial-inclusion-means-more-having-bank-account> (접속일: 2017.11.01.).
- Wave Money. 2017. <https://www.wavemoney.com.mm> (접속일: 2017.11.01.).
- World Bank. 2013a. Financial Inclusion Strategies Database. <http://econ.worldbank.org/WBSITE/EXTERNAL/EXTDEC/EXTGLOBALFINREPORT/0,,contentMDK:23491959~pagePK:64168182~piPK:64168060~theSitePK:8816097,00.html>
- World Bank. 2017. “Global Findex Database,” available at <http://datatopics.worldbank.org/financialinclusion> (접속일: 2017.10.15.).

[부록 1] 미얀마 현지조사 주요 이해관계자별 면담 내용

1. 국내 금융기관: 국민은행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면담

면담일시	2017.5.15.(월), 11:00-14:00, K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법인
면담참석자	- KOICA (3명) : 혁신사업실 임한나 대리, ODA연구원 오수현 연구원, 미얀마사무소 신호정 인턴 - 국민은행 (2명) : 김학수 K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법인장, 김창우 KB양곤사무소장
주요 내용	가. 진출 배경 및 현황 - KB 국민은행은 2013년 7월 양곤 사무소를 오픈하여 본점과의 리에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K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법인은 2017년 3월 영업을 시작함. - 미얀마는 외국계 은행 진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마이크로파이낸스 법인을 설립하게 됨. 미얀마는 2011년 마이크로파이낸스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규제감독국(Financial Regulatory Department; FRD)의 관리 하에 있음. - 마이크로파이낸스 영업은 초기 1년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그 이후 규제감독국의 심사를 통해 정식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함.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대출하였을 경우 비공식적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향후 영업 가능 지역 확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침. ※ 양곤 내 46개의 타운십(township: 행정 구역 단위)에서 배정받은 지역에 한해영업이 가능함. 나. 금융 상품 -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loan) 상품은 그룹대출(group loan)과 주택대출(housing loan)이 있으며, 주택대출은 개인대출과 그룹대출로 나누어짐. - 그룹대출은 지역 주민 10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상호보증을 이루며, 개인 당 10만 차트~50만 차트(약 8만원~40만원) 대출이 가능함. 대출 금리는 연 30%(월 2.5%)로 설정되어 있음. - 그룹 대출의 자금사용 출처로는 1) 고금리 사금융 대출 상환용; 2) 식료품 상점, 가두 노점상 등 운영 자금 마련; 3) 실생활 소비 자금 마련 등이 있음. 특히, 사금융 상환용의 경우 미얀마는 음성적 사금융이 발달되어 있어 대출 3개월이 지나면 원금수준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농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몰수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긍정적 역할이 큼. - 또한 그룹 대출 시, 강제예금(compulsory saving) 제도를 두어 대출금액의 5% 예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만기까지 보유해야 함. 자발적 예금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에 한해 예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예금 금리는 최소 13~15%를 제공함 (비교, 일반 은행 예금 금리 10%). - 주택 대출의 경우 역시 담보는 없으나 미얀마의 경우 건설부 혹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 건축 승인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 간접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대출은 아직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 금리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만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에서 오피스나 인력을 주택대출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므로 (건설부와 MOU 맺음) 금리를 기존보다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임.

	- 주택대출 신청 가능 대상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천막 같은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스커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현재 국민은행은 현재 집을 소유하거나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나, 양곤 주 정부에서는 스커트 대상의 주택 대출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스커트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사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를 20% 정도 책정하는데 마이크로파 이낸스기관의 경우 담보 조건이 없으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상품 마케팅은 먼저 해당 타운십 행정관청(General Administration Office; GAO)에서 승인을 받은 후, 마을(Ward)대표에게 가서 사전 승인을 받음. 마을 대표는 절(파고다)이나 학교에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현지 직원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 상품 설명회를 진행함.
--	---

2. 공여기관: 일본 JICA

면담일시	2017.5.16.(화), 21:00~21:40, Chatritum Hotel 1층
면담참석자	- KOICA (2명) : 혁신사업실 임한나 대리, ODA연구원 오수현 연구원 - JICA (1명) : Tsuji Kazuto, Visiting Senior Advisor
주요 내용	가. JICA의 금융포용 분야 전략 및 사업현황 - JICA는 CGAP 설립 초기인 90년대 중반 빈곤계층 대상 소액대출(microcredit)이 등장하던 때부터 금융포용 분야를 조직에 내재화하여 전략 및 사업실행 수준에까지도 적용하기 시작 - JICA는 금융포용 분야를 기후변화, 환경, 성평등, 인권과 같은 수준에서 범분야적인 이슈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 필수로 연계되어야 하는 이슈로 기존의 농업분야 사업의 타깃 그룹의 필요에 기반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타깃 그룹의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는 것을 추구 - 90년대 중후반에는 소액대출 개념을 증명하고, 지속가능한 접근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액금융기관(MFIs, Micro Financial Institutions)에 지원금 및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MFIs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한 기준마련을 위한 자문, MFIs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위주로 금융포용 분야 사업을 운영 - 2000년대 중후반에는 금융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확대 및 사회적 투자를 이끌어와 은행, MFIs 뿐 만 아니라 자조협동그룹이 금융포용 분야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출 뿐 만 아니라 저축, 보험, 대출상환 완료자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등 개발에 중점 -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저렴한 서비스 전달 확대, 책임성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의 심화 발전,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집중 나. CGAP 내 JICA의 주요 활동현황 - (지원규모) JICA는 CGAP 설립 초기부터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30만불 규모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협업형태) JICA는 금융포용 분야의 사업모델을 CGAP과 공동으로 개발, 시험한 후, 모델에서 검증된 성과를 기반으로 JICA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도입,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

	다. 시사점 - JICA는 CGAP과의 금융포용 분야 사업모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시험 과정 없이는 JICA에 해당 분야를 내재화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ODA를 다루는 원조기관 차원에서 CGAP은 금융포용이라는 신사업 분야에 대한 모델 개발 및 시험을 수준 높은 업계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플랫폼임을 강조 - JICA는 또한 KOICA가 CGAP의 회원기관이 된다면 금융포용이라는 신사업 분야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경감, 완충이 가능하므로 CGAP 회원기관으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
--	--

3. 공여기관: 미국 USAID

면담일시	2017.5.18.(목), 17:00~17:30, Chatritum Hotel 1층
면담참석자	- KOICA (1명) : 혁신사업실 임한나 대리 - UNCDF (1명) : Michael Advisor (USAID)
주요 내용	가. USAID 금융포용 현황 - USAID는 금융포용 분야를 농촌지역개발 사업 혹은 소득증대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여 진행을 하거나 Challenge Fund 형식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금융포용 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핀테크 분야에 대한 아시아 지역 Challenge Fund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고,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나. KOICA와의 금융포용 분야 협력 가능방안 - USAID가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금융포용 요소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모델을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KOICA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 금융포용 관련 성과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핀테크 분야에 대한 아시아 지역 Challenge Fund 프로그램을 기존 KOICA와 USAID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GCD, GIE와 같은 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협업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가능한 것으로 판단

4. 자선재단: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BMGF)

면담일시	2017.5.16.(화), 19:00~19:40, Chatritum Hotel 1층
면담참석자	- KOICA (2명) : 혁신사업실 임한나 대리, ODA연구원 오수현 연구원 - BMGF(1명) : Jason Lamb, Deputy Director, Financial Services for the Poor
주요 내용	가. BMGF의 금융포용 현황 - (일반) 금융포용은 보건(health) 및 식수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과 함께 BMGF의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고, Global Development Division 아래 Financial Services for the Poor Team이 연간 약 1,000만불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 (목적) To help people in the world's poorest regions improve their lives and build sustainable futures by connecting them with digitally-based financial tools and services. - (중점분야) BMGF의 금융포용 4대 중점분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Digital payment systems), △디지털 금융 서비스(Digital financial services),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 (주요 기대성과) BMGF는 중점분야의 개별 노력들을 통해 △금융소극에 대한 대비와 소득창출 기회 포착을 위한 빈곤층의 역량 제고, △빈곤 및 저소득층의 광범위한 인구를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간, 금융 서비스 제공자, 정부 및 민간 사업체와 연결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빈곤층이 금융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감소를 달성하고자 목표 나. CGAP 내 BMGF의 주요 활동 - (지원규모) BMGF는 Mastercard Foundation과 함께 CGAP의 최대 재원분담 회원기관 중 하나로, '17년 기준 약 900만불을 CGAP에 지원하였고, '18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 - (협업형태) BMGF 금융포용 분야 사업의 대부분이 CGAP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CGAP에 외주 혹은 시행을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CGAP 사무국에 자기관 직원을 파견하여 CGPA의 전문직원들과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국별로 적정 협업이해관계자를 물색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 - (사업현황) BMGF와 CGAP은 공동으로 △디지털 지급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금융포용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규제, 제도 자문 및 advocacy 활동을 전개하고, △디지털 지급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부문의 신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연구 및 시범사업 모델을 연구 및 실험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다. KOICA와의 협력 가능방안 - BMGF의 Jason Lamb 디렉터는 KOICA는 아직 금융포용 분야가 초기 도입단계라는 점, 최근 핀테크 기업이 이주노동자 송금 문제를 다루는 KOICA 사업을 제안한 점, KOICA가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대부분의 중점협력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 연계하여 BMGF와의 기존 사업 혹은 신규 사업 형성 기회를 찾아보고자 함. - BMGF측은 KOICA의 중점협력국, 혁신사업실의 혁신적파트너십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Program) 관련 자료를 공유해주면 금융포용 분야에서 협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을 전달 - 더불어, BMGF측은 한국의 경우 모바일 기기, 정보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KOICA가 CGAP의 회원이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표시
--	--

5. 자선재단: 마스터카드재단(Mastercard Foundation)

면담일시	2017.5.16.(화), 20:00~20:40, Chatritum Hotel 1층
면담참석자	- KOICA (2명) : 혁신사업실 임한나 대리, ODA연구원 오수현 연구원 - 마스터카드재단 (1명) : Mark Wensley, Senior Program Manager
주요 내용	가. 마스터카드 소개 - 마스터카드 본사는 캐나다에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만 지원하고 있음. 올해로 기관 설립 10년이 되었으며, 다가오는 12월에는 향후 전략을 발표할 계획임. 동 전략에는 국가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혹은 구가별 전략을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현지사무소는 없음. - 원조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르완다에서 영국 DFID, 덴마크 DANIDA, 스웨덴 Sida와 FSD*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술 지원을 한 경험이 있음. * FSD(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10개의 금융분야개발프로그램의

그룹체를 의미함. '빈곤층을 위한 시장 조성(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접근방식을 주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농업 금융, 중소기업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의 테마에 전문성이 있음. 매년 증여 형식으로 5,500백만 불을 집행하며, 현재 120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임.

나. 지원 분야 현황

- 지원 분야는 크게 교육 분야와 금융 포용 분야를 지원함. 또한, 농업비즈니스 분야 내에서도 금융 포용 분야를 지원하거나 혹은 농업 기술 지원(agricultural extension)에 참여하고 있음.

사례: 게이트 아카데미를 통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Through the Gate Academy)

- 마스터카드 재단은 8년 간 공급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자금 지원과 장학금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해옴. 그러나, 최근 지원의 전략적 방향성을 변경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식을 채택함. 또한, 장학금 지급 방식은 보조금이라는 성격 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성과에 대한 요구를 수혜자 개인에게 지나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의 일환으로 CGAP과 게이트웨이 아카데미(Gateway Academy)라는 혁신적 학습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함. 게이트웨이 아카데미는 잘 짜여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플랫폼을 목적으로 개발됨.
- 게이트웨이 아카데미의 주요 요소는 1) 훈련 제공자들의 역량 강화; 2) 리서치 및 커뮤니티 수립을 위한 공동 워크숍 수행; 3)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 포용 분야 내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 갭을 극복하고자 함.
- 게이트웨이 아카데미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의 언어를 다양화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콘텐츠 전부를 다양한 언어로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성과 측정을 위해서 매년 질적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며, 플랫폼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또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요소임.

다. KOICA 협력 가능 방안

- 현재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 12월 이후 국가 전략이 발표된 이후 KOICA 국가 사무소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부록 2] UNCDF SHIFT Challenge Fund 심의 기준

심의 항목		주요심의 내용	배점
사업의 특수성 및 기술적 측면	기획성	- 3차 SHIFT Challenge Fund 취지 및 목적 부합성 - 해외송금 여성 발송인 및 수신인에 대한 금융포용 제고를 통한 생계 개선점 포함여부 - 기존 파악된 시장실패를 다루면서 '19.12.31일까지 혹은 30개월 내에 명확히 정의되고 예측된 결과로 달성 가능 여부	10
	혁신성	- 혁신적 아이디어 포함 여부 - 사업수행방식의 혁신 정도(0:없음~10:매우높음)	10
	위험요인	- SHIFT Challenge Fund 투자금을 정당화하는 사업의 위험 및 수익에 대한 평가 내용 - 투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 실행 가능성(0: 매우높음~10: 매우낮음)	10
	확장 가능성	- 제안된 기간 내에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해외송금 여성 발송인 및 수신인 수 -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의 교육/인지제고 활동 포함 여부 - 비즈니스 모델이 타 주체들에게 있어 시장 행동변화를 유도하는지 여부 - 사업기간 동안 해외송금 여성 발송인 및 수신인 최소 5,000명 서비스 제공 여부	15
	파트너십 구성	- 파트너십의 강도 -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선택 여부 - 파트너십 구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	10
	고객보호	- 여성(여성 주도 기업여성 피고용인, 여성 고객)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의 구체성	10
	개발성과	- 여성을 위한 합법적 해외송금 확장 측면에서 사업의 직접적/간접적 성과의 구체화 정도 - 해외송금 서비스의 ASEAN 지역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잠재력 정도 - 예상되는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성과 특히 여성에 대한 성과의 두각 정도, 예상되는 성과의 실행가능성	10
소계			75
제안사의 조직적 역량	역량	- 제안주체의 사업실행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슈와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 제안된 기간 내에 의도된 결과물 창출, 제안된 위험경감방안 이행, 과거 동 분야에서의 이력에 대한 사업주도기관 및 파트너기관의 역량 - 총사업비의 최소 50%를 분담할 수 있는 제안주체의 역량	15
	지속 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투자종료 시점 기준 사업의 혜택	10
소계			25
사업비 매칭	비용성	- 투자심의위원회가 적합/부적합을 판단 - 비용에 분담금이나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조정 제시 가능	P/F
총합계			100

연구자료 ODA연구 2017-28-144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

발 행 2017년 12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47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I S B N 978-89-6469-472-5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

